

International Islamic Federation
of Student Organizations



오해받는 宗教, 이슬람

ISLAM
THE MISUNDERSTOOD
RELEGIION

MOHAMMED QUTB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IN THE NAME OF ALLAH
THE MERCIFUL THE COMPASSIONATE**

شهاجوا الإسلام

محمد قطب

الترجمة والترتيب ، إدارة الدعوة الإسلامية

باللغة الكورية

الابحاث الإسلامية العالمية

للنظمات الطلابية

١٤٠٧ هـ - ١٩٨٧ م

ISLAM
THE MISUNDERSTOOD
RELEGIION

MOHAMMED QUTB

I.I.F.S.O.

1407 A. H. - 1987 A. D.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فَأَمَّا الَّذِينَ فِي قُلُوبِهِمْ زَيْغٌ فَيَتَّبِعُونَ مَا تَشَابَهَ مِنْهُ
أَبْتِغَاءَ الْفِتْنَةِ وَأَبْتِغَاءِ تَأْوِيلِهِ

(آل عمران ٧)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마음이 사악한자들은 불화(不和)와
그에 숨은 뜻을 찾으며 항상 비틀어진 길을
걸는 법이니라” (성꾸란 3장 7절).

차 례

제 1 장 머리말	7
제 2 장 이슬람과 계급제도	12
제 3 장 이슬람과 자선	17
제 4 장 이슬람과 여성	62
제 5 장 이슬람과 사상적자유	68
제 6 장 이슬람과 처벌의 개념	75
제 7 장 이슬람과 성적억제	80

제1장 머리말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오늘날 하나의 종교적 위기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종교는 우리 生活의 한 측면이 되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그래 왔지만 科學이 우리의 모든 생활을 변모시켜 놓은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종교의 의미는 아직도 존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종교가 아무런 과학적인 요소도 지니지 않고 있으며 과학적 사실들이 종교적인 것들을 증명해 낼 수 없다는 것 역시 사실일까요? 정말 종교는 인류의 진정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종교는 각 개인의 성격적인 구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일까요? 따라서 우리들은 믿음과 믿지않음이라는 두 조건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종교를 믿어도 좋고 믿지 않아도 좋다고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이슬람에서는 이러한 知性的 위기와 유사한 현상에 대해 철저한 반대입장을 취합니다. 이슬람은 단순한 信條일 뿐 아니라 영혼의 함양, 그리고 人間德性의 정화 및 훈련을 담당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正義로운 경제체제, 잘 균형잡힌 사회조직, 합리적인 民刑法과 國際法, 그리고 物理的인 지침체제위에 철학적인 변모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하나의 “조화스러운 전체(Harmonious whole)”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것은 이슬람이란 하나의 同一한 기본적 신조와 이슬람의 도덕적, 정신적 성격으로부터 유래될 것입니다. 서구의 지성인들은 이러한 얘기를 들을때 마다 매우 당황해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슬람이 케케묵은 종교이며 그 유용성을 다해버린 종교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에 현신적인 무슬림들이 “이슬람은 오랜 과거의 종교, 완고하고 낡은 유습의 종교가 아니라 심지어 현재 이 순간에도 활력에 넘치고 영구히 존속해 나가는 생의 체제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등 인류에 알려져 있는 어떤 이념체제 보다는 생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종교”라고 주장하는 얘기를 들을때 마다 서구의 교육받은 자들은 더욱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1

그들은 그들자신을 더이상 변론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신의 말씀에 그들은 괴로워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이슬람을 노예제도와 봉건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의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이슬람이 여성들을 남성의 부속적인 존재로 간주하여 오직 가정에만 여성을 구속해 두는 종교이며 틀팔매질로 사형을 집행하며 신체의 여러 부분을 절단하며 채찍질을 가하는 그런 형벌의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이슬람이 사람들을 자신에 의지해 살도록 하며, 제급제도를 옹호하여 서로 착취를 하게하며 땀흘려 일하는 출에게 고생한 생의 가치를 부여해주지 않는 종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같은 슬한 단점을 갖고 있는 종교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존속해 올 수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존속될 수 있을 것인가요? 이러한 이슬람의 장단점에 대한 논란은 고사하고 이와같은 제도를 갖고있는 이슬람이 오늘날과 같이 상이한 사회, 경제적 체제간의 처절한 이념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어떻게 존속될 수 있었던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겠읍니다.

이제 이점에 대해 더 살펴보기전에 이 “교육받은 출들의 종교적 회의에 대해 잠시 살펴보기로 하지요. 언제부터 그들의 이러한 회의론이 싹트기 시작했을까요? 이러한 그들의 마음가짐은 그들 스스로의 자유로운 사고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아무런 생각없이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맹무새처럼 흉내내는 것에 불과한 것일까요?

사실 그들의 회의론은 그들의 독자적인 사유의 결과도, 아니요, 그들 마음으로부터 유래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참된 원인을 알기위해서 우리는 근대사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세인들은 유럽과 이슬람세계의 십자군전쟁을 목격했습니다. 이 양진영은 서로간의 적대감이 끝날 때까지 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상흔간의 적대의식은 종식되지 않았고 이 점은 영국이 일차대전중 애무살렘을 정복했을 때 알렌비(Allenby) 경이

명백하게 얘기했던 “이제 우리는 십자군 원정의 결말을 보았다. (Now have the crusades come to an end!!)”라는 귀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또한 지난 2세기동안에 유럽의 제국주의가 이슬람세계와의 지속적인 분쟁을 유발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英國은 1882년 타위(Taufiq)의 배신적 행위에 뒤이어 에짚트를 침공해 들어왔고 오라비(Orabi)의 영도아래 반생할지 모르는 인민혁명을 분쇄하기 위해 에짚트의 군사적 점령을 위한 모의물그와 함께 꾸렸던 것입니다. 그후 영국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그들의 이익을 동방의 참된 이슬람 정신에 의한 가능한 반발로부터 보호하고 이슬람 세계에 대한 그들의 지배를 보다 강화시킨다”는 목적에 주안점을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우리들은 영국의 빅토리아(Victoria) 왕조시대의 명제상 글래드스톤(Gladstone)이 英國 하원(下院)에서 발언했던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는 성 쿠란을 그의 손에 들고 하원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에짚트인들이 이 책(쿠란)을 갖고 있는 한 우리들은 동 지역에서 어떠한 평화나 평정도 누릴수 없을 것입니다.”

자연히 영국정부가 추구했던 정책은 이슬람법률과 원칙들을 조롱하고 무슬림들의 가슴속에서 내재하고 있는 신앙심을 없애며, 이슬람을 먹칠하여 무슬림들로 하여금 이슬람을 경시하도록 하여 드디어는 이슬람을 전적으로 말살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에짚트에 대한 제국주의적 압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들을 취했던 것입니다.

英國인들이 에짚트에서 취했던 교육정책은 청년학생들로 하여금 이슬람은 예배와 기도로 신(神)에 대해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종교일 뿐이며 쿠란은 神의 축복을 불러들이기 위해 읽히는 단순한 한권의 서적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이슬람은 고상하고 판대한

도덕적 목적을 추구하는 이론적인 접근이라고 하는것 이외에는 이슬람의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년학생들은 이슬람이 정부의 사회경제적 체제를 갖고 있는 것이라든가 또한 하나의 基本法의 역할을 하며 국내의 정책의 기초가 되며 완벽한 하나의 교육체제인 동시에 생활의 방식이자 우리의 인생전반에 걸친 탐조등이라는 것을 알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교육받은 것이라곤 일부 동방학자들과 유럽의 십자군들이 무슬림들도 하여금 이슬람을 버리고 제국주의의 악령과 같은 지배체제에 쉽게 굴복시키게 하기위해 마련된 이슬람에 반대되는 회의와 의구심 뿐이 있습니다.

이들 학생들은 현재 기존(既存)해 있는 유일한 사회제도라고는 유럽인들의 사회제도밖에 없으며 참된 경제제도 역시 유럽의 철학자들에 의해 인정된 것 뿐이 있으며 가장 정의롭고 적합한 형태의 입헌정부 역시 오랫동안 발전해 내려온 유럽의 입헌정부 이외에는 없다고 교육 받았던 것입니다. 이들 학생들은 인권(人權)이 불란서혁명에 의해 최초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민주주의는 영국인들에 의해 대중화되었으며 현대문명의 기초를 제공한 것으로 마제국(帝國)이었다고 교육 받았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국인들은 유럽을 반항적이나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거인으로 묘사했으며 동방사회를 그 사회적, 문화적 구조때문에 유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는 하나의 난장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효과를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에집트인들 사이에는 그들의 개성과 독자적 문화의 존재를 망각하는 부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문화적으로 완전히 서구인들의 노예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서구의 문화물거의 맹목적으로 신봉했고 드디어 그들은 냉철한 관찰의 능력과 독자적인 사고의 능력을 상실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럽인들이 원하는 대로 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고했던 것입니다. 소위 오늘날의 교육받은 지식인들은 제국주의자들이 그들의 정

치적책략으로 에짚트에서 이루어 놓았던 제 상황의 극한점들을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련한 지식인들은 이슬람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고 오직 회의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럽의 교사들을 통해 교육받은 그들에게 이슬람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에 그들은 유럽인들처럼 종교와 정치물, 과학과 이슬람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유럽의 종교와 이슬람의 이념이 다르다는 것을, 그당시에 유럽에 풍미했던 특수환경을, 그리고 유럽에서의 종교와 사회의 격리현상이 그 지역사회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풍조는 우리 이슬람사회에서는 결코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이슬람을 믿지말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슬람은 한 공동체의 사회, 정치, 경제적 문제의 운영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유럽인들의 사고를 맹목적으로 표명하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유럽은 종교와 과학이 갈등을 이루어 오던 대표적인 지역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교회는 자의적으로 고대 회랍으로부터 내려오던 어떤 이론과 도그마(獨斷)들을 채택하여 이러한 이론과 도그마들은 성스러운 것이며 복음(福音)적인 진리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정연하고 경험적인 과학이 이러한 교회의 이론들에 대한 오류와 잘못을 예증했을 때 유럽인들은 과학을 믿는 수밖에 없었으며 교회와 그들이 믿는 종교에 대해 불신(不信任)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와 과학간의 대립은 그 농도를 더해 갖고 이러한 종교인들의 지배로 부터 해방하려는 열망은 유럽의 종교들이 스스로 신성(神聖)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양계를 가할 수록 더 증대하여 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에 유럽인들에 있어서 종교는 그들의 작업시간은 물론 심지어는 수면시간에 까지도 그들을 구속하는 귀찮은 악령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 유럽의 중세교회는 신(神)

이라는 미명하에 그들의 인민들로 하여금 상식밖의 것과 미신을 믿게끔 강요했으며 성직자들에 대한 복종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단지 “지구는 둥글다”라고 발언했다는 이유 때문에 과학자가 고문을 당하고 화형에 처해 저야만 했던 현실은 가장 추악한 범죄의 하나로서 양식있고 자유로히 사고를 하는 양심적인 인사들로 하여금 이러한 종교적인 악령의 사슬을 파괴하여 대중들을 해방시키려 종교가 허위와 비진리로 가득차 있다는 인식을 개조하기 위한 의무를 느끼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슬람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 한가요? 우리들 역시 종교와 과학을 분리해야 하며 이들 양자가 상호 다른 대립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까요? 이슬람과 그 기본 신조에 모순되는 과학적 사실이 있을까요? 이슬람의 세계에서 처형당한 과학자들이 있는가요? 이슬람의 모든 역사는 우리들 앞에 명백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이슬람의 세계에는 많은 위대한 의사, 천문학자, 수학자, 물리학자, 화학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 어느누구도 그들의 주관적인 견해때문에 처형당한 자는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들 대 과학자들의 과학적 견해가 종교적 신념과 모순되어 대립된 적이 있었다는 기록 역시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과 통치자배자들과의 적대감이 존재해 그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화형에 처했다는 기록 역시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 소위 “교육받은”자들이 종교와 과학의 분리를 주장하고 정확한 이해나 지식이 없이 이슬람을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슬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세뇌(洗腦) 되었다는 한 증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 책을 집필하는에 있어서 소위 이러한 “교육받은” 엘리트계급은 본인의 심중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유행인 스승들이 무신론적(無神論的)인 물질문명에 절망을 느끼고 이 물질문명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정신적이고, 실질적인 삶의 체계로 돌아올때까지는 결코 이슬람이란 바른 삶의 길로 귀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오히려 다른 계층을 위해 이 책을 집필했던 것입니다. — 즉 현실과 진실을 진지하게 찾고자 하는 성실하고 개화된 젊은 세대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 세대들은 현재 기만적인 제국주의의 세력에 의해 광명을 보지 못하고 거짓에 대한 답변을 갖고있으며 이슬람에 대한 의심과 허위로 어둠속을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제국주의의 노예와 공산주의의 악령들은 우리의 이 젊은 세대를 자유와 명예와 승화에 이르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본인은 이 조그마한 책자를 밝고 진지한 젊은세대에 바치며 알라께서 이들의 마음으로 부터 이슬람에 대한 모든 의심을 거두어 주실것을 기도하는 바입니다.

제2장 이슬람과 계급제도

우리들은 이슬람의 계급관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계급제도”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中世유럽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볼 때 그 당시에는 「귀족」, 「승려」, 그리고 「평민」이라는 명확한 세 계층이 있었습니다.

승려계급은 그들 특유의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당시 교회의 권력은 임금이나 제왕들의 권력과 동등하여 때로는 이들에 대해 반기를 들기도 하곤 했었습니다. 「바티칸」의 법왕(法王)은 여러 왕들에게 권력을 부여해 주는 것은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해 왔으나 많은 제후(諸侯)들은 독자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법왕의 영향력을 벗어 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인들의 헌금과 민중들에 부여된 세금등으로 교회는 풍요해 졌고 그 결과 독자적인 군대(軍隊)까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귀족계급은 그들의 조상으로 부터 작위를 물려받아 후손들에게 물려 주는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태어나면서 귀족계급으로 지명되어진 자들은 일생중의 어떠한 행위에도 관계없이 죽을 때까지 귀족으로 남게 되는 것이 있

입니다.

봉건시대에서의 귀족들은 그들의 영토안에 거주하는 평민들에 대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모든 입법 사법 및 행정권은 그들의 수중에 있었으며 심지어 그들의 엄중한 생각이나 번덕스러운 생각까지도 민중을 지배하는 법률로 되곤 했던 것입니다. 비록 대의원회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 기구의 성원 전부가 귀족계급에 속했기 때문에 동기구의 입법안들은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귀족계층의 특권과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평민들은 아무런 특권이나 권리도 없었습니다. 이들 평민들은 빈곤과 예속성과 굴욕만을 상속받고 이들 후손에 물려주어야 하는 기구한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후 일어난 급격한 경제발전은 「브르쥬아」계급을 출현시켰습니다. 이 신생계급은 귀족계급을 몰락시키고 그들 스스로의 특권과 권리를 구가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분위기는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평민들의 지도력 하에서 더욱 고무되었고 급기야는 비록 이론상의 것으로 끝났지만 자유, 평등, 박애의 원칙들을 천명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자본주의 제급제도가 낡은 귀족제도를 대체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체는 경제발전에 의해 어쩔수 없이 야기되어진 변화의 한 형태일뿐 기본적인 제급의식의 원칙은 조금도 변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상 현대의 유산(有産) 계급들은 정부의 제반 정치형태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유도시킬 수 있는 재력 권력 그리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선거에 명시되어진 자유의 명백성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다양한 명목하에 그리고 옹지못한 수단을 통하여 그들의 부정한 목적을 달성키 위해 의회와 정부에 어떻게 교묘히 침투해 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 부르는 영국이 아직 까지도 귀족계급으로 이루어진 상원제도

들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영국은 장자에게만 전 유산을 상속케 하는 낡은 봉건시대의 법률을 아직도 반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소수 제한된 사람의 수중에 모든 재산을 소유케 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가족의 재산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그들은 중세의 봉건계급제도의 낡은 권위와 영향력을 아직도 행사하려 들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계급제이란 재력은 곧 權力이요 재력을 소유하고 있는 계급은 곧 권력계급이란 그릇된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층은 곧잘 법과 질서를 초월한 영향력의 행사를 희망하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유권력층은 직접,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자신의 계급을 방어하고 평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위에 복종토록 하여, 드디어는 그들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입법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계급의 정의에서 볼때 “이슬람에서는 결코 계급제도가 존재한 적이 없다”고 단언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명백히 들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어느 특정소수에게만 부의 집중을 허용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聖」쿠란」에서 말씀하시길.

“너희들 가운데 부유한 자들만이 다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나”(59장 7 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슬람은 끊임없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모교를 전제로 하는 법률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상속에 관한 이슬람의 법률을 보더라도 모든 유산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친척이 아무도 없는 아주 희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에게만 유산이 상속되는 경우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이슬람은 사자(死者)와 직접관

편되지는 않지만 착취당한 사람들에게 그의 유산의 일정 부분을 분할하여 주도독 세심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아마도 현대의 상속제 제도의 모체가 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聖)쿠란」에 제시하시길,

“너희들이 유산을 배분할 때 친척이나 고아나 가난한자들이 함께 있게되면, 그들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주고 친절과 공정의 발로서 그들을 대하도록 할 지니라”(제4장8절)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부의 축적에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일부 특수권력층의 구성원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골고루 나누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죽을 때는 그들의 재산은 새로운 비율로 재분배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사회에 있어서의 부가 어느 특정 종족의 전유물이 되어 온 것이 아니고 부단히 사람과 사람의 손을 거쳐 유동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는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의 중요한 결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즉 이슬람에 있어서의 모든 법률은 어느 한 특정계급의 특권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슬람국가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데로의 법률을 만들도록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중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졌고 사람들간의 평등을 주장하는 이슬람 법률에 의해 동등하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슬람사회는 계급이 없는 사회라는 것이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계반 사회계급의 존재는 법률적 특권의 존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특권이 존재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률을 일방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닌 곳에서는 자연히 계급제도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상응하는 쿠란의 두 귀절을 살펴봅시다. 이 귀절들은 조
심스래 위지 않을 경우 약간의 의심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이들보다 너희들 몇에게만 보다 자유
로운 재능을 주었나니”(제16절71장)

“우리들은 계층에 따라 소수의 인간들을 다른 인간들과달리 양
육했느니라”(제43장32절)

위의 두 귀절들은 이슬람이 계급제도를 인정하는 종교라는 것
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두귀절은 이슬람에 의해 통치했을때와 혹은 다른 방식에 의
해 통치했을 때 이 지구상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귀절들은 사람이라는 것이 계층과 삼
그자체에 있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를 예로 들어 봅시다. 러시아의 모든 인민은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일부 인사들은 다른이들 보다 훨씬 큰 특권
을 누리고 있습니까? 징집된 모든 병사들은 모두 장교이거나 사
병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양성해야 합니
까? 사람간에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필연적인 현상
입니다. 위에 적은 두쿠란 귀절은 그러한 상이점에 대한 특별한 이
유를 규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한 상이한 편견이
자본주의, 공산주의 혹은 심지어 이슬람 국가체제에 기인한 것이
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이점의 정당
함과 부당함을 구별하게 하는 우리의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 역
시 아닙니다. 오직 이 귀절들은 그러한 인간 간의 상이점이 지구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단순히 예기해 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물론 지구상에 발생하는 모든것은 하나님의 의지의 영역
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슬람사회는 계급도 어느 입법적인 특권도 있을 수 없는
사회라는 것을 명백히 해야만 하겠습니까. 재산과 부가 어느 특
정인들에 대한 법률적, 개인적 특권을 부여해 주는 수단이 되지

많은 한 부와 재산상의 차이점이 계급의 문제와 혼동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대중이 법앞에 평등한 한 부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결코 계급제도의 발생을 야기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슬람에서의 토지소유권은 그 소유주에게 농민을 노예화하거나 착취할 수 있는 어떠한 특권도 부여해주지 않은 다른것을 지적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만일 자본주의가 참된 이슬람사회에서 존재해 왔다면 상기와 같은 긍정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사회의 통치자는 부유계급으로부터 그 권력을 축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률”을 이행하기 위해 인민대중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모든 개개인에게 공평히 부가 분배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계급제도를 폐지했다고 주장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조차 아직도 여타 계급을 억압하는 지배계급이 존속하고 있는 실정이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제 3 장 이슬람과 자선

공산주의자와 식민지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슬람이 부자들에게 의한 자선제도에 사람들을 의존케 하여 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릇된 비난은 구빈세(救貧稅), 즉 “자카트(A) Zakat”가 부유한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의무적인 자선이라고 믿는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을 반박하기에 앞서 우리들은 구빈세(救貧稅)와 자선을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자선은 법이나 지배자의 명령에 의해 부과될 수 없는 자발적인 것임에 반하여, 자카트(救貧稅)는 법에 의해 그 징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구빈세를 내지 않으려는 자들과 투쟁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는 구빈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으려는 자들을 처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이들은 이들이 속한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단자

들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 스스로의 양심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는 자선과 사회적 의무로서의 구빈세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들입니다.

재정적 측면에서 볼 때, 부(富)의 재분배(再分配)를 위한 조세의 형태로서는 아마 구빈세, 즉 자카트가 세계에서 최초의 세금 일 것입니다. 물론 이 구빈세 이전에도 많은 조세의 형태가 존재하고 있었음이다만 이들 세금은 통치자의 개인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재정원(財政源)의 확보수단으로 징수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조세의 부담이 부자들 보다는 가난한자들에게 떨어지곤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역사상에 나타난 여러 자료들을 살펴볼 때 대부분의 조세는 일반대중(평민)으로부터 거둬들여 졌던 것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일정한 세액(稅額)을 정해 놓았고 또한 대부분의 조세를 부유층과 중산층에 적용시키므로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세금을 면제시켜왔던 것입니다.

이슬람교에 있어서는 이렇게 거둬들인 구빈세가 부유층이나 지배층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분배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자카트, 즉 구빈세는 국가에 의해서 걷어 들어지고 국가에 의해서 분배되어지는 일종의 세금형태인 것입니다. 이슬람체제하에서의 대장성(大藏省)은 오늘날 국민에게 조세를 징수하고 공공사업을 위해 이를 재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재무부(財務部)와 같은 것입니다. 국가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무능력자들과 같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을 돌보아 주고 지원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그 수혜자(受惠者)에게 수치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현역에서 은퇴한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는다고나 노무자들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다고 하여 이들을 부자에게 구걸을 청하는 걸인(乞人)으로 규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노약자(老弱者)와 어린

이들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해서 이것이 수혜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는 민중의 복지라는 점에서 이러한 시책을 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는 역사상에 부지기수로 나타났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되어진 근대적인 사회제도인 것입니다. 이슬람의 영광중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구빈세라는 형식을 통해 오래전 부터 존재하고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이슬람이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구가하고 있을 때 유럽은 중세의 암흑시대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서구에서 도입해온 이러한 제도에는 매혹되면서 이슬람의 사회보장제도를 후진적이며 퇴보적인 제도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초기시대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 구빈세를 현금이나 그와 동등한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분배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빈세의 분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빈세는 병원이나 학교를 짓고 고용증대를 위한 공장을 건설하며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카트, 즉 구빈세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형태로도 분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불구자, 노약자, 그리고 어린이들은 현금으로 이 구빈세를 받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용이나 사회보장제도의 형태로써 이 구빈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슬람사회는 전적으로 구빈세에만 의존하여 살려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엄격합니다. 사실상 이슬람사회는 제2대 칼리프였던 「오마르 빈 압벨 아지즈(Omar bin Abdel Aziz)」시대에 하나의 이상적인 단계에 도달했었습니다. 그때에는 구빈세가 걸려졌지만 그것의 혜택을 받을 가난한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마르 빈 압벨 아지즈」시대에 구빈세 징수관이었던 「야히야 빈 사이드(Yehia bin Said)」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오마르 빈 압델 아지즈는 아프리카로 부터 구빈세물 징수해 오라고 저를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저는 세금을 걷은다음 이물 다 시 나누어 주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 다녔지만 이들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 하나 이 구빈세의 혜택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마르 빈 압델 아지즈」가 모든 사람들을 풍요케 했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느 사회에나 가난하고 곤궁한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필요한 법적 대안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을 매 시대마다 이러한 사회적 인구에 자카트를 통해 대처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카트의 궁극적 목표는 「오마르 빈 압델 아지즈」시대와 같이 풍요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자선〉

자카트라함은 부유한 사람들이 자선을 위해 기꺼히 내놓은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슬람은 이러한 회사행위를 인정할 뿐 아니라 적극 권장합니다. 자선행위에는 부모와 친척들을 돌보며 전반적으로 빈곤한 자들을 도와주는 방법등이 있는데 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선행이나 친절할 말씨까지 다 자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친척들과 이웃에 대한 관대한 행위를 그들의 감정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대한 행동은 베푸는 자가 지니고 있는 애정과 또한 공감의식과 자애심의 발로인 것입니다. 어떤이가 자신의 형제나 친척들을 위해 만찬을 베풀었을 때 이 만찬이 그들을 떨시하거나 그들의 적대감과 증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곤궁한 자에게 베푸는 여러가지 자선들은 이슬람의 초기에는 자카트에 관한 규정들어 준했었습니다. 그 당시의 생활환경은 여러가지 선물을 회사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이슬람은 이러한 회사를 곤궁과 불행에 처해 있는 자들을 돕는 건전한 방법으로 간주하

였던 것입니다. 이슬람에는 자선이 어떤 한가지 방법만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자선은 사회사업을 하는 조직이나 단체에 회사의 형식으로도 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카트」는 어떤 계획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이슬람국가에 원조의 형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는한 국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들의 삶을 보다 안락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슬람사회가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슬람국가가 앞에서 언급하였던 이상적인 국가에도달하였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카트」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선의 필요도 느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자카트」나 자선은 사회에 아주 중요한 사업, 다시 말하면 어떤 이유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과 같은 사업에 할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극복해야 될 것은 이슬람은 결코 무슬림이 자선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슬람국가는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굴욕스럽지 않은 삶을 형위하게 하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는 자선이나 친절의 발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만 합니다.

한편 이슬람국가는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당한 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무슬림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귀절에 의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도님(그 분께 평화가 깃드소서)에게로 와서 먹을 것을 구걸했을 때 사도님께서는 그에게 도끼와 밧줄을 주시면서 나무를 해서 그것을 팔아 생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님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돌아와서 전말을 보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인(誤認)을 하고 있는 사람은 위에서 말한 귀절이 12

세기에 있었던 사소한 개인적인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들은 위의 이야기는 하나의 도끼와 밧줄과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현대의 삶은 커다란 공장과 수많은 실업자와, 여러 부문에 의하여 그 기능이 수행되어지는 조직된 정부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논리는 아주 우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님께서 공장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일천년전에 공장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그 당시에 공장에 대해서 언급했다면 아무도 그 분을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전 기본적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적당히 응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칙만 제시함으로써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귀절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원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 사도님(즉, 국가의 수반)은 그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책임감이 있다.
2. 사도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일자리를 보장하셨었다.
3. 사도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돌아와서 보고하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사도님의 책임감을 강조하셨었다.

1300년전에 이슬람이 규정하였던 책임감은 오늘날의 정치나 경제적인 이론에 의하여 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국가가 그들의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그들을 부양할 것입니다. 무슬림은 그들 자신과 국가와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않으므로써 이 점에 있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제4장 이슬람과 여성권.

근래에 들어와 동양에서는 여성의 권리, 더 나아가서는 남성과의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주장 하는 사람 중에는 이슬람은 모든 점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유지해 왔었다고 단언하는 지나친 옹호자가 있는가하면 이슬람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 갇혀서 이슬람은 여자를 지적으로 열등하게 하며 동물과 같은 위치에 놓이게 함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낮추었기 때문에 이슬람은 여자의 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성이 단지 남성의 성적인 충족수단이며 자식을 만드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모든 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상위권을 가짐으로써 여성이 남성에게 예속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도 모르고 있으며 자신들이 무모한 계획을 앞세움으로서 사회에 대해서 부조화를 이루며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고 옳고 그름을 억지로 혼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유럽에서의 여성의 권리 확장운동을 지나간 과정을 살펴봄으로서 오늘날 서구사회의 결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 보겠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여성의 존재는 보장될 없다고 여겨왔습니다. 학자들과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자인 정신을 지닌 존재인가? 「정신을 지녔다면 그것의 본질은 무엇인가?」「여성인 인간에 가까운가 동물에 가까운가?」

「여자가 인간의 정신을 지닌 존재라면 남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인간적인 지위는 어떠한가?」「여성은 남성의 종으로 태어났는가 아니면 종보다는 조금 나은 지위를 가져야 되는가?」 등의 문제들이 많은 토론의 주제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대 회람이나 로마 제국시대의 사회구조에서 여성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이때의 여성 지위의 향상은 일반적인 여성지위 향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층의 소수의 개인적인 자질이 있는 사교계의 여성들과 수도에서 살고 있던 여성들의 지위의 변화에 불과 했을 뿐입니다. 이때 이런 여성들은 방탕하고 부유한 자들이 함락과 편력이 대상에

불과 했을 뿐이며 인간으로서 여성에 대한 존경심을 의미하거나 남성이 즐거움의 대상 그 이상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럽에서 이와같은 여성의 지위는 봉건주의 시대 동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지했던 그시대의 여성들은 때때로 사치와 방종에 눈이 멀었고 동물처럼 먹고 마시고 아이를 낳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사는데 만족했던 것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을때 여성들은 인류역사상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즈음의 유럽은 관용과 관대한 마음대신에 엄격함과 탐욕이 앞선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남성들로 하여금 직접 간접의 어떤 물질적인 보상없이 역경을 겪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농업이 주요산업이었던 노예와 봉건주의 시대의 경제적 생활여건은 남성이 여성을 부양할 책임을 지게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관습은 그 시대의 정신과 자연스럽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여성은 어느 농업사회에서도 찾을 수 있는 면방직공장에서 단순히 노동을 하였고 이와같은 방법이 남성의 부양에 대한 댓가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일어남으로 하여 도시와 농촌이 사회현상이 급격히 변화되어 가족생활에 급이 가기 시작했고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 까지도 공장에 나가 일하게 됨으로 해서 가족을 구성하는 유대의식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상호협동과 책임을 나누어 가지던 농촌생활이 기초를 이루던 원칙이 깨어지고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이웃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사람들을 부양하려 들지 않았고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기위해 노동을 하여 생계비를 벌지 않으면 안되는 도시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으로하여 도덕적인 규범이나 관습이 깨어지고, 성적인 자극을 충족시키는 기회를 가지기만 하면 아무런 가책도 없는 문란한 행동을 저질렀고, 이런 사태의 결과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려는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적었으며 실록 결혼에 대

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도 결혼 시기를 연기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럽의 역사를 논할려는것이 아니라 단지 유럽 역사에서 여성에 영향을 미쳤던 요소를 살펴 본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산업혁명은 여성과 아이들에게 까지도 일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해서 가족이란 현연공동체의 의식을 약하게 만들었고, 가족생활을 깨뜨렸으며, 여성의 경우는 전보다 더 많은 노동량에 시달려야 했으며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만족이 없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남성들은 비록 부인이나 어머니까지도 스스로 생계비를 별도로 요구했고, 공장주들은 여성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했으며 남성들과 똑같은 일을 시키면서도 아주 작은 임금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유럽이 비참함, 생활의 경직 망은때문에 유명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되면 모든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는 새삼스럽게 질문할 필요조차 없겠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도 벌을 받지 않는 곳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기록이 입증하듯 자발적인 선한 행동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느님이 바른길로 인도하시거나, 정신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자세를 제외하고는 알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문제로 남게 될것입니다.

약하고 무력한 여성과 아이들이 무자비한 공장주의 착취에 대해 사악하고 불평등한 이런 범죄를 묵인할 수 없던 양심적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투쟁을 하게 하였고 공장주의 진인성을 중식시키기 위해서 힘쓰게 했습니다. 사회개혁자들은 어린이들을 고용하여 힘든 일에 비하여 적은 임금을 주면서 어린이들이 자연적인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고 비난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부정에 대한 저항은 부분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이런 노력의 결과로 노동연령은 점점 높아지게 되었으며 임금은 상승되었고 작업시간은 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그때까지 유럽에 존재하지 않았던 지적인 자유를 요구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옹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 결과로 여성들은 스스로 생계비를 벌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을 해야만 되는 시련을 겪어야만 했으며 똑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남성에 비해 적은 임금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유럽과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부인을 남긴채 숨져 갔습니다. 이 가련한 부인들은 가혹한 노동량을 감수해야 되는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가족을 이끌어 나갈 사람들 대부분은 전쟁터에서 숨졌거나 불구가 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쟁이 만들어낸 긴장과 공포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함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신체적 정신적인 불편을 피하려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부족한 노동인구를 채우기가 힘이 들었고 공장들은 생산하기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물을 복구하기 위한 일손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런 자리를 메꾸는 일이 여성들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여성들의 측면에서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연로한 부인이나 아이들이 굶주림의 위협을 받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장에 나가 일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는 여성의 본래의 임무와 도덕적인 관념을 부서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의 !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들은 여성의 노동력만 요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성적인 충동까지도 충족시켜 줘야 되는 대상으로 여성들을 변모시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성은 이중의 부담을 짊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여성들은 또한 굶주림의 고통과 성적인 문제까지도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 전쟁으로 인한 남성의 수가 감소됨으로 해서 정상적인 결혼을 통한 그들의 성적인 만족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종교와 도덕관이 이러한 시기에서 까지도 일부다처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유럽의 여성들은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열정에 휩싸이게 되었고 값비싼 옷과 화장품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빵과 성적 충족을 얻으려는 욕구는 이런 삶의 경로를 밟도록 강압하였던 요인들이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서구의 여성들은 남성들의 노리개가 되고 상짐이나 공

장에서 일함으로써 그들이 갈망하고 원하는 것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성취했던 것이며 이런 욕구들은 소유하면 소유할 수록 더욱 심해졌으며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공장주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 남성들 보다 더 적은 임금을 여성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사실은 어떤 이론이나 인간의 양심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지나친 불평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에서 일어난 혁명은 불가피한 것이었고, 이 혁명은 수세기 동안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일소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혁명의 결과 여성들에게는 과도한 육체노동과 여성으로서의 품위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가족을 갖고 어린애를 가지며 그들과 함께 살고 고생을 겪으므로써 자기 실현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조차 부정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임금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럽의 남성들은 여성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게 되고 남성들이 우월감을 쉽게 버린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성들은 여성과의 싸움에서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거칠고 힘든 투쟁을 겪은 후에야 여성에게 어쩔 수 없이 평등권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여성의 권리를 찾으려는 이 싸움에서 여성은 과업 또는 협조를 병행하여 싸웠고 여성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서 대중들에게 연설을 하기도 하였고 신문을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후에 여성들은 자신들 문제를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입법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것을 인식하고 투표권을 요구하였으며 피선거권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남성들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기 위한 교육을 마치고,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하게 행정부에 참여 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내용이 유럽에서 여성의 권리획득을 위한 투쟁사입니다. 이러한 여러종류의 투쟁사들은 실제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중에서 남성의 관련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여성은 스스로 남성들을 권력자와 지도자의 위

치로 부터 새롭게 이룩한 사회질서 속에서 남성과 마찬가지로 자신들도 무력하다는 것을 끝 깨닫게 되었습니다. (註 1)

〔註 1. 경제적인 2 인의 삶을 결정 지우는 실제적 요건인 것과 마찬가지로 유럽의 여성권리 획득과정에서 경제적인 요건이 결정적인 요건이라고는 인정되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남성이 여성을 부양해야 하며, 여성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 있어서도 남성과 같은 임금을 받을 평등권을 인정하고,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다처를 인정하는 이슬람의 생활이념과 체계를 가졌더라면 사태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요람이라는 영국에서는 (비록 영국의회에 많은 훌륭한 여성의원이 많지만) 오늘날까지 행정부에서 일하는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 보다 작은 보수를 받는 사실을 알면 누구나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에서 여성의 지위를 살펴보기 위하여 서구에서와 같이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무기를 들게 하였던 역사, 지리, 이념, 법적인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동양의 여성권리 옹호자들이 집회장소에서 열정적으로 외쳤던 것이 아무런 뜻도 없이 단지 서구사회의 경우를 모방하였는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이슬람은 그 체계를 이루는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여성도 한 인간이며 남성과 꼭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인간들이여! 대초에 한 인간을 만드시고 다음에 그의 동반자들 만드셨으며 이 두사람으로부터 수많은 남녀를 탄생케 하신 하느님에 대한 의무를 잊지 말지어다. [성. 쿠란 4 : 1]

이와같이 남성과 여성은 그들의 근원과 그들이 죽은 후에 돌아갈 곳이 똑같은 것이며, 또한 이슬람은 생활과 명예와 재산상에 있어서 남성과 같은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했습니다. 여성은 존경을 받아야 할 하나의 인간이며 아무도 여성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누구도 여성을 관찰하거나 여성의 기능때문

에 별시를 해서도 안됩니다

남녀간에 구별과 차이를 두지 않는것은 남녀가 서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 규정된 법은 남녀에 대해 똑 같이 적용됩니다.

“오 믿는 자들이여! 너희들 중에 누구나 다른 사람을 조소하지 말지어다. 후자가 전자보다 더 훌륭할지 모르니라. 서로 비방하거나 중상하지 말지이며 서로 헐뜯는 별명을 부르지 말지어다.

[성, 쿠란 49 : 11]

“... 그리고 서로 정탐하지 말지이며 등 뒤에서 욕하지 말지이다.” [성, 쿠란 49 : 11]

“오 믿는 자들이여! 타인의 집을 방문할 때에는 먼저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출입을 허용할 때 까지는 집안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성 쿠란 24 : 27]

사도님 - 그분께 평화가 깃드소서! - 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무슬림이든지 다른 무슬림의 생활, 명예, 재산을 차지해서는 안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하리와 무슬림]

남녀 선행에 대한 보상 또한 같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선행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불지어다! 나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어떤 노동자의 일도 헛되게 됨을 허용치 않으리라. 너희들은 서로 의존하여 태어 났느니라” (3 : 285)

남성과 여성은 재산의 소유, 처분할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물질적인 욕구를 실현하는데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 재산을 저당할 수 있으며 늘릴 수 있으며 유언에 의하여 유

산을 물려줄 수 있으며 재산을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도 있는것 입니다.

“부모나 가까운 친척이 남긴 재산은 남성들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속하느니라” [성 쿠란 4 : 7].

“그리고 부부가 모은 재산은 남성에 속할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속하느니라” [성 쿠란 4 : 32]

여기에서 우리는 재산을 소유하고 자신의 의사대로 이용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두가지의 중요한 점을 주목하여 봅시다. 문화가 발달한 유럽에서는 가장 최근에 이르기 까지 여성에게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읍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권리를 아버지나 후견인을-통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읍니다. 이것은 이슬람이 여성에게 권리를 부여한 후 1100년 이상이나 유럽의 여성들은 이런 권리를 박탈 당한채 지내온 것입니다. 결국 유럽 여성들이 이런 권리를 얻기는 하였으나 명예와 인간적인 고상함까지 완전히 얻을 수는 없었읍니다. 오히려 여성들은 경제적인 환경에서 오는 타격과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던 계급간의 투쟁이 아닌 본래 이슬람이 여성에게 인정해왔던 것들 중에서 한부분을 얻기 위해서 가혹한 중노동과 살인, 궁핍, 비참함을 보고 겪는 것 이외에도 이런 권리를 포기 해야만 했었읍니다. 이슬람은 꿈의 세계가 아닌 현실적이며 인간적인 가장 기본적인 두가지 사실, 즉 진리와 정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여성의 권리를 이미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공산주의와 서구사람들이 주장하는 인간생관은 경제적인 존재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겠읍니다. 그들은 여성 자신이 소유한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그것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하는 여성은 결코 독립된 존재가 아니므로 어떤 경제적인 존재로서의 독립성을 갖게 될때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남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갖게 되어 자신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자유로히 그것을 이용하고 즐길 수 있게 될 때 진정한 독립적 존재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인간생활에 대해 이런 좁은 견해와 경제적인 여건으로만 인간생활을 격하시키는 편견을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 경제적인 요건이 인간의 감정과 자아의식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공산주의와 서구 사상가들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이슬람은 여성의 독립적인 경제적 지위를 인정하며 재산을 어떤 중개인이 나 신탁인을 통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로서 소유하고 사용하여 처분할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함에 있어서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결혼을 예들들면 독립된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성은 본인의 동의없이 결혼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만일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파부의 재혼에도 본인과의 상의가 있어야 하며 처녀의 결혼인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이 됩니다. 결혼식 후에라도 신부가 결혼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면 그 결혼은 파기가 됩니다.

이슬람 이전의 여성들은 자신들을 완전히 복종시키고 있던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 완곡하며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토자에 관한 법률이나 일반 법률대상으로 여성은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 남편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은 여성이 자신의 마음만 결정하면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도록 정확한 문구로 여성의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註2)

「註2. 그와 같은 여성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동양에 있어서 현재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에 비추어 볼때 단순한 망상처럼 여겨질지 모르나, 이슬람은 이슬람의 교리와 모순되고 이슬람 법의 실천을 방해하는 요인때문에 비난 받을 수는 없다. 이슬람의 초기에 여성은 이런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법의 제정자이신 사도님 뿐만 아

나라 그분의 후계자들-초기의 칼리프-에 의해서 인정되어 왔다.

오늘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나 다른 문화물 모방하는데 맹목적으로 추종함으로써 과생되는 비 이슬람적 실천일지라도 이런 법률들을 공포하는데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이런 법률을 시행하자는 것이다。」

위와같은 것뿐만 아니라 이슬람은 한걸음 더 나아가 여성이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남성에게 청혼할 권리가 주어졌읍니다. 유럽 여성은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권리를 획득했으며 이것은 과거 수세기동안 전통에 대항해서 여성이 얻은 매우 커다랗고 뜻깊은 승리로 찬양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가 무지와 암흑속에서 헤매고 있을때 인간의 교육을 어느 특정한 집단의 특권이 아니고 모든 인간 개개인이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던 것도 이슬람이었읍니다.

이슬람은 무슬림들에게 하느님과 이슬람을 믿는 진정한 신도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을 갖추어야 된다고 강조했으며 여성의 인간으로서 독립된 위치를 인정하고 지식이 없으면 완전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상을 최초로 여성들에게 암시한 종교라는데 자랑스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 있어서도 의무로 간주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여성들이 그들의 신체적인 능력에 따라 상상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정신적으로 보다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은 가장 최근까지 여성에게 이런 권리들 부여하지 않았으며 결국 경제적인 곤란을 겪게 되어서야 여성에게 그런 권리들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실들은 이슬람이 여성을 차별대우 하여 여성을 남성의 종속물로 여기고 생활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전혀 중요시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논박하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슬람이 그러한 교회라면 이슬람은 여성이 지식을 얻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이슬람

이 여성 생활의 영광되고 숭고한 지위들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섭리로도 인정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에게 인간으로서 완전히 동등한 지위를 인정
하고 그들을 똑같이 대우하며, 똑 같은 권리를 부여한 후에도 이
슬람은 몇몇 분필가들, 혁신주의자들, 그리고 청년층에 의하여 지
지받지 못한 몇몇 여성조직들에 의해서 주창되어온 생활에 있어서
의 남녀간의 기능상의 차이를 인정합니다.

여기서 이슬람이 성별의 차이를 든다는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생리적 생물학적 심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다음에 이슬
람의 관점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동일한 성에 속합니까?

아니면 두개의 다른 성에 속합니까?

그들은 생활하는데 있어서 유사한 기능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서로 다른 기능을 가졌습니까?

이와같은 두제가 핵심이며 난점을 이루는 것입니다. 만약 여성
회의에서나 그들의 지지자들이나, 작가, 사회개혁자들 그리고 청
년층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생물학적인 기능만이 아니라 남녀간의
육체적인 그리고 직관적인 기능에서 차이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는 그들에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남성과 여성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
를 함께 논의할 필요를 갖게 됩니다.

남녀의 평등권 문제는 「이슬람과 유물론에 있어서의 남성」이라
는 나의 저서에 상세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여기에
반복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는 그들의 기능과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각기
적절하고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갖추어
진 신체구조에서 뿐만 아니라 성격에 있어서도 서로 크게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남녀 사이의 절대적인 평등에 관한 논리가 어떻게 지속될 수 있겠
는가 하는 점을 이해 하는데는 약간의 혼동이 따릅니다.

인간으로서 남녀의 평등에 대한 요구는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것입니다. 남녀 모두 모든 인류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같은 조상으로부터 유래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데 있어 남녀를 그들의 기능에 있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또 그 기능들이 실제로 수행되는데 있어 그것이 어떻게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겠습니까? 비록 세계의 모든 여성들이 그런 것을 원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어떤 결의문을 통과시킨다 할지라도 이러한 주장은 불가능할 뿐입니다. 이런 회의의 결의는 남녀의 내적인 특징을 결코 바꿀 수 없으며 더구나 남성에게 여성의 기능인 잉태나 출산 수유등의 일을 맡기고 여성의 기능을 남성의 기능으로 바꿀 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특수한 생물학적인 기능도 정신물리적인 특수한 형태의 특질이 없이는 결코 수행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여성의 특수한 기능인 잉태, 수유하는 일을 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이며 지적이며 소양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고상한 감정과 훌륭한 행동은 일련의 시련을 통해 얻은 인내, 덧붙여서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이런 모성애는 잉태하고 젖을 먹이는 여성의 특수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경조직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나 지적조직에 원기를 불어넣는 신체적 구조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성의 지적, 심리적, 신체적 그리고 신경상의 특성은 자체적으로 조정되며 조화를 이루며 서로 병행 보완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특성들 중에 어느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병존하여 존재하지 않는 경우란 찾아 보기가 힘들습니다.”

“여성이 지니고 있는 부드러운 감정, 직관적인 감수성, 고도로 다감다정한 성품은 선천적으로 지적인 특성보다는 정서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아이를 기르는데 있어서 능동적이며 환동적이며 또 어린이의 요구가 있을때 결단력있게 받아드릴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을 지적인 자질보다는 요구가 있을 때마다 조금도 지체없이 그것들을 들어 줄 수 있는 충만한 사

랑과 생생하며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같은 모성애를 이루는 것은 바로 이런 정서적 특징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생활에 있어서 여성의 진정한 특성이며 여성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며 창조적인 목적을 현실화하는 것을 도와 줍니다.”

“반면에 남성은 여성과는 판이하게 다르며 남성에게 적절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됩니다. 밀림에서 맹수와 겨룬다던가 하늘과 땅에서 자연의 힘을 극복하려 노력한다 든가, 정부를 구성하거나 국민경제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일 등으로 바깥 세계에서 생존경쟁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남성들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생계비를 벌어서 자신의 아이들 뿐만 아니라 그 자신과 아내까지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이와같이 남성은 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 열정적이며 감정적인 천성이 필요하지 않으며 감정이란 — 그러 남성의 임무를 해 나가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란 것은 쉽사리 변하며 전혀 반대방향으로 나가기도 하는 변덕스런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감정을 일으키는 대상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어떤 목적을 추구하기에 힘이 듭니다. 이와같이 항상 변하는 감정의 특성은 모성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일을 요하는 남성의 일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반대되는 의견을 지닌 사람들과 겨뤄야 하는 실제 생활에서 남성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인 기질입니다. 그래서 남성의 성품은 계획하고 주의깊게 상황에 대응하고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전에 모든 가능한 결과를 고려하는데 더욱 큰 효율성을 나타냅니다. 지성은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변모합니다. 행동의 신속성은 모든 여성의 특징인 열정적인 감정과는 반대되는 지성에서는 기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성에서 기대 할 수 있는 것은 사냥을 하고 어떤 기구를 발명하고 새로운 경제체제를 기획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전쟁을 하고 평화를 이룩하는데 있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성들의 활동은 지적능력에 의존하며 감정은 이런 활동을 수행하는데

장해가 됩니다.”

“남성은 생활에 있어서 아주 남성적인 목적을 추구하는데 적합합니다. 이런 사실은 남녀 각각의 구조상의 차이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왜 남성은 감정적인 생활에서는 어린애 같이 번덕스러우면서 육체적이고 지적인 기능에 의존하는 일에는 아주 즐거워 하는가? 왜 여성은 정서적인 활동에서는 잘 조화하며 그렇게 커다란 즐거움을 느끼는 것인가?

그것은 지상에서의 여성의 진정한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서적인 활동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품이 여성이 간호, 교육, 유아등의 직업에서 안락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여성이 남성 동반자를 성공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과 같이 여성이 어느 상점에서 일할 때 그 상점에 대한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은 여성이 가진 정서적 매력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은 지엽적인 것이며 활동 자체가 남편·가정·가족·아이들에 대한 여성의 내적인 충동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원래의 기능을 수행할 기회를 얻지 되면 곧 여성은 그녀의 직업을 버리게 되며 금전상의 궁핍과 같은 고통을 받지 않는다면 가사에 열중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성과 여성이 근본적으로 그리고 서로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남성이나 여성중에서 어느한쪽이 즉 남성은 여성이, 여성은 남성이 하기에 적합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잠재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같이 남성과 여성은 그 능력이 혼재되어 있으며 만일 여러분이 통치를 하고 재판을 하며 무거운 짐을 들을 수 있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여성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요리를 하고 집안의 잡다한 일을 하고, 어린애를 잘 돌보는 모성애를 지니고 있고, 감정적으로 기복이 심하고 쉽게 마음을 상하는 남자들 만나더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겨야 할것입니다. 이런 행위에 부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으며 남성과 여성이 각기 다른 능력을 지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추리해 볼 때 조금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야기로 물이해한 서구인들과 별로 감정이 좋지않은 동양인들에게 우리를 믿게 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려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히 언급했지만 실제적인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초과기능이 여성의 본래의 기능과 대치 될 수 있을까요?

여성이 이런 기능을 가짐으로 해서 가정과 어린이와 가족에 대한 욕망을 더 이상 느끼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여성의 성적요구를 충족하는데 더 이상 남성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살펴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차이점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과 이슬람에서의 남녀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이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이슬람이 현실적인 생활의 체계이며 정도에서 벗어나거나 정도에 반항하지 않으려는 인간성을 늘 참작한다는 점입니다. 이슬람은 인간에게 자신의 정신을 승화시켜 꿈과 이상의 세계에 접근 할 수 있을만큼 형이상학의 경지에 이르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교화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슬람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을 바꿀려고 하지 않으며 인간성에서 이러한 변화는 항상 가능하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또 가능하다고 해도 인간의 복지에 유익하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이슬람에서의 가장 숭고한 인간성의 성취는 물질적인 욕망의 구속에서 벗어나 수양을 쌓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덕을 행할 수 있는 경지에 달은 후에 인간 본성의 도움을 받아 또 그 본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슬람이 취하는 태도는 인간성과

직결시키며 이유가 타당한 경우 남녀의 평등권을 인정하며, 차별이 당연한 것이라면 차별을 둡니다. 이슬람이 남녀를 차별하는 두 가지 뚜렷한 경우는 유산의 처분과 가정의 주도권입니다.

유산에 대해서 이슬람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성에게는 여성 두사람에 해당하는 몫을 나누어 주라” 이 귀절은 당연하며 정당하게 여겨집니다. 모든 재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남성이기 때문이며 여성은 자신의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자신의 비용을 제외하고는 누구를 위해서도 돈을 소비할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이슬람사회에서는 여성이 가족을 부양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여성은 먼 친척이 있기만하면 여성자신이 자기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려가 여성 해방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근거로 빈약한 가정과 편견에 쌓인 주장을 버린다면 문제는 아주 간단한 산수에 불과하게 됩니다. 여성은 전체 유산 가운데 자신을 위해 소비할 1/3 정도를 상속받을 수 있으며, 남성은 자기의 부인에 대해서나 가족과 어린이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전체유산의 2/3를 물려 받게 됩니다. 수학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면 남성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그들이 돈을 자신들 위해서만 소비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정상적이지 못한 남성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은혜로서가 아니라 도덕적인 의무로서 여성인 자신의 부인을 포함해서 자신의 가족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는 것은 남성입니다.

만일 어떤 부인이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남편은 그 부인의 동의없이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부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남편은 부인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생계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이 이런 의무를 거절하거나 그의 수입에 비하여 너무 인색하다면 부인은 재판을 청구하고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고려한다면 남성이 여성에 비

해 두배를 갖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유산 상속에서 남성보다 저게 차지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유산의 분배에서도 같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슬람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은 인류가 만든 법률중에서 가장 공평합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는 그의 필요에 따라서”라는 원칙이 적용될 때 얼마나 훌륭한 원칙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져야 하는 사회적인 책임이 표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입에 있어서 남녀의 구별이 없습니다. 임금이나 이익이나 토지수익등에서 남녀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슬람은 노동과 그에 따른 임금에 있어서 남녀 모두 동등히 적용되며 남녀 모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이슬람에 있어서 여성의 가치는 남성의 반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무슬림들에게 통용되며 또 이슬람을 적대시 하는 사람들이 고의로 퍼트린 악평들은 앞서 살펴본 산수계산에서 살핀 것처럼 거짓임이 밝혀 졌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여성 두사람의 증언은 남성 한사람의 증언과 같은 가치로 인정되는데 이것은 여성의 가치가 남성의 가치의 절반 밖에 되는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증인이 피고에게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간에 사실과는 무관한 모든 폭해를 막고 또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법정에서 증언의 순수성을 얻고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처사 입니다. 여성은 선천적으로 매우 감정적이고 감동하기 쉬워 관련되어 있는 사건의 진실에서 벗어나 자업적언 태로 호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사람이 물리면 다른사람이 기억할 것이다”라는 격언처럼 여성을 한사람 더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 입니다. 피고가 매력적인 여성인 경우 여성증인으로 하여금 질투심을 일으키게 하여 거짓증언을 하게 할지도 모르고, 피고가 젊은 남성이기 때문 그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고 증언석에 있는 자식을 가진 여성이 거짓 증언을 할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또는 어떤 사건의 증인으로 나온 두 여성이 똑 같이 거짓증언을 함으로서 잘못을 저질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이 되며 두 여성중에서 한 여성이 사실을 잘못 알고 있다면 다른 여성이 정정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만약 증인으로 나온 여성이 여성병에 대한 전문가이며 그 여성이 여성병과 관계 있는 사건의 증인으로 나온다면 증인은 한사람으로 족한 것입니다.

두번째 문제인 가정의 주도권에 대해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그리고 아이들로 구성된 공동생활인 가족의 일들을 의무감을 가지고 처리할 관리자가 필요 한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모든 사회 조직처럼 가정도 책임있는 지도력을 필요로 하며 이런 지도력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정부상태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가정의 주도권에 대해서는 세가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남자가 가장이 되는 것이요,

둘째는 여성이 가장이 되는 것이며,

셋째는 남녀 둘이서 함께 가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셋째경우는 지도자가 들이면 지도자가 하나인 경우보다 더 다름이 심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구란에는 지구와 하늘의 창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알라 이외의 신이 있다면 땅과 하늘은 무질서 해졌을 것이니라.”

“알라에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신도 존재 하지 않느니라. 만약 있다면 그 신들은 그들이 창조한 것을 옹호했을 것이며 피조물들은 서로 다른 피조물을 정복했을 것이니라. [성 구란 21:22]

만약 이와같이 여러 신들이 있어서 앞서 이야기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공격적이고 무도한 인간들은 어찌 했을까요?

심리학은 가정의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서로 싸우는 부모 밑에서 자라난 어린이들은 아주 심한 심리적인 열등의식에 쌓여 감정적으로 균형을 잃는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가지 가능성을 고려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중 어느쪽이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

기에 더 적합하며 누가 더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선천적으로 감정적이며 외부의 영향을 받기 쉽고 생존경쟁을 하고 가정의 주도권을 갖기에 부적합한 여성보다 남성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에 적합한 강한 신체와 합리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우유부단하고 여성에게 쉽게 지배될 수 있는 남성을 여성은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성의 태도는 과거 수세기 동안 겪은 것들이 마음에 흡수된 자세의 잔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여성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여성이 신체적으로 강한 남성애 의해서 이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비록 여성이 남성과 같은 지위를 얻게되고 완전한 독립된 인간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하는것을 좋아하고 남성을 사랑하고 남성을 자기편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여성은 남성의 굳센 체력과 넓은 가슴에 매혹되며 자신의 신체적나약함 때문에 억센힘에 만족할 때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여성은 자신의 아이가 없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가정의 주도권을 가질려고 할지도 모르나, 아이를 갖게 되면 여성은 초과책임을 짐어질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어머니로서의 기능은 벌써 여성에게는 커다란 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가정의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은 가정이나 여성에 대한 독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도권이란 것은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는 의무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직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성공이란, 상호 이해와 연구적인 공감을 내포합니다.

이슬람은 싸움과 경쟁보다도 사랑과 상호이해와 영구적 공감이 가정생활의 기초를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성과의 교제는 다정하게 해야 하느니라” (성꾸란 4 : 19)

“여러분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은 여러분의 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티르미지]

이렇게 쿠란에 제시된 사람을 평가하는 척도는 그의 부인에 대한 행동이며, 훌륭한 척도로 생각되어 집니다. 남자가 정신적인 병이들어 완전히 덕성을 잃지 않았거나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결점이 없는 경우는 그의 부인을 잘못 대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설명이 필요한 많은 의문들은 한 가정의 공적인 관계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의무의 문제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의무를 나타내는 것과 이혼과 일부다처제의 문제들로 나타납니다.

결혼이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관계이며 두사람 사이의 모든 다른 관계와 같이 두사람의 개인 심리 이성 신체적인 조화에 의존합니다. 법의 명령에 의해서도 이런것을 확실히 조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결혼한 부부가 완전한 평화와 조화속에서 산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그들의 결혼생활 속에 규칙을 준수한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심한 싸움뒤에 부부의 사랑은 더욱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결혼한 부부사이에 불화나 싸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남편의 잘못이나 부인의 불복종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부가 모두 인간적으로 고상하지만 성격의 차이 때문에 화해의 불가능을 한탄하고 서로 화해를 앓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실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결혼생활의 질서를 규정하는 이유는 인간생활의 여러가지 미묘한 양상을 제어할 수 있는 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생활체제도 이해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규정된 한계내의 세부적인 항목을 만들어 남녀사이의 최소한의 일반적인 불가침의 한계를 법률로서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사이에 사랑과 평화가 깃들여 있는 성공적인 결혼은 법의 보호와 판결이 불필요하며 법에 의존할 필요는 더욱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사이에 불화가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의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법은 공정성을 잃어서는 아니 됩니다. 양편중에서 어느 한쪽을 옹호하므로써 다른편의 손해를 입혀서는 안되며 가능한 모든 사대

를 예상해야 합니다. 다시 되풀이 한다면 어떤 법률도 인간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우를 내포할 수 없으며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때 적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러한 주장이 제기 되어있는 부인들이 의무에 관한 이슬람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인의 법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점을 고려 하고 있습니다.

- (1) 이러한 의무는 여성에 대해 부당한가?
- (2) 이러한 의무는 한쪽에 치우친 것이며 편견은 아닌가.
- (3) 이러한 의무는 여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인가.

부인에게는 남편에 대해서 세가지 중요한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1) 부인은 남편이 잠자리를 함께 하기를 원할때에는 언제나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2) 남편이 싫어하는 사람이 남편의 잠자리를 더럽히게 해서는 않된다.

(3) 남편이 부재중일때 남편에 대한 신의를 저버려서는 않된다.

이 세가지 임무중에서 첫째번에 대해서 조금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로서는 너무도 명백한 사실인데, 남성의 신체적 구조는 성적인 만족을 얻음으로서 성욕의 압박감에서 벗어나 실제생활에서 그의 임무를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특히 젊었을 때에는 성적본능에 강하게 지배받으며 여성에 비해 많은 성적만족을 갈구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적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강하며 표현이 없을 따름이지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남성보다 더 강하게 성적만족을 갈구합니다. 결혼은 남성에게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생활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남성의 본능을 충족 시켜줍니다. 이제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그의 부인에게 잠자리를 함께 하기를 바랬을때 부인이 냉정히 거절하고 무시되었을때 남편은 어떻게 할것인가? 다른 부인과 부정한 관계를 가질것인가?

그러나 어떤 사회도 그런 경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부인 자신도 어떤 불운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자기 남편이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다른 여성에게 매료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이 잠자리를 함께 하기를 원할 때 부인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부인이 남편을 싫어하며 남성과 접촉을 하고 싶지 않을 때

(2) 부인이 남편을 사랑하나 행위자체를 싫어함으로써 거절하는 경우

(3) 부인이 사랑스러운 여성일 뿐만 아니라 행위를 싫어하지 않으나 특별한 때 접촉을 싫어하는 경우

이같은 세가지 경우 가운데 첫째 번의 경우는 영구적이며 어떤 조치나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을지 모르며 이런 상태에서 결혼이란 결속은 오래 지탱해 나갈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가장 좋은 해결책은 남편과 부인을 격리시켜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 본 것 처럼 남성보다 여성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 됩니다.

두번째 경우도 부인의 사정은 영구적 일지 모르나 이런 상황의 발단이 남편측의 성적인 갈구에 있는 것은 아니며 원인적인 치유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남편과 부인 사이의 완전한 조화가 회복되어야 만 합니다. 부인이 남편을 거절하면 남편도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하며 부인도 남편과 떨어져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진실로 사랑스런 부인이 되어 남편의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켜 줘야 합니다. 만약 이런 것이 실패한다면 아주 떨어져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함께 사는 한 부인은 이슬람 법에 따라 성문제에 있어서 남편의 요구에 응해 줘야 합니다. 이것은 독단적이며 강제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도덕적인 타락을 막고 부인에게는 더 고통스런 다른 결혼을 방지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슬람법은 부인이 남편에게 증오로 대하고 성문제에 있어 남편이 독단적일 때 극단적인 상황을 계속 유지하도록 고집하지는 않을

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서로 멀어져 사는 것이 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의 경우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쉽게 치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위에 대한 혐오는 신체적인 피로나 권태등의 결과로 생기기 때문에 정신불안학적 방법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런 상황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성에 대한 불감증은 정신적인 일치감을 이끄는 방향으로 노력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만약 부인이 잠자리를 원하는데 남편이 어떤 이유때문에 싫어하는 경우는 남편이 젊은 경우에는 드물겠습니다만 남편의 행위를 기대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 아닙니다. 여성에게 남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듯이 반대로 여성도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원할때 남편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부인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에 그들의 결혼은 파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슬람법에서는 남편과 부인 양쪽에 모두 똑 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인에 대해서 어떤 강제성이나 면시 등의 느낌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싫어하는 사람이 남편의 잠자리를 밟지 못하게 한다는 두번째의 의무는 남편이 싫어하는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 금지된 것이며 어른에게만 국한 된것이 아니며 비록 남편이 나들이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삼가해야 할 규율입니다. 이러한 제율은 결혼한 부부사이의 대부분이 말다툼과 허위사실과 증상을 퍼뜨려 그들의 불화를 부채질하는 제3자의 개입을 막는 현명한 처사입니다. 이런 사태의 진전을 막기 위해 남편이 부인에게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부인이 무시물 하면 어떠한 해결책도 없는 불행한 씨앗만 뿌려질 따름입니다. 이와같은 부인의 임무는 어린이를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거들고 따뜻한 분위기를 기대하는 모든 가족의 행복

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인이 동의 하지 않으면 남편은 어떤 외부사람을 집에 들어 오게 해서는 안된다고 법적으로 왜 규정하지 않는가? 남편과 부인이 평화와 사랑속에서 살고 품위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누리는 부부에게는 모든 문제를 쉽게 이해하기 때문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부사이에 불화가 있는 경우 합의에 도달하기에 불가능 할 때에는 그들의 의견차를 해소하기 위해 법정으로 나서야 합니다. 만약 남편도 부인의 동의없이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 오게해서는 안된다는 규율을 남용한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생각은 감정을 앞세운 단순한 생각이며 심사숙고한 결과가 아니어서 대부분 불합리 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부인의 생각은 시어머니 시누이등 사집식구와의 자연스럽지 못한 관계에서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부인에게 복종할 것을 남편의 임무로 한다는 것은 부당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정당되지 않을 수 없는 일시적이며 감상적인 친절에 불과 할뿐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이야기 한것처럼 나는 남편이 하는 일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의 행동이 어림내 같으며 신뢰성이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또한 부인만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 부자연스러운 관계의 원인을 찾아내어 보면 아내가 남편을 싫어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부인보다 더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정상적인 생활을 가정하여 법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비중을 두게 됩니다.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을 위해주는 것을 참을 수 없을 때 언제든지 남편과 떨어져 살 수 있습니다.

세번째 여성의 의무- 남편의 부재중에 남편의 재산과 명예를 지키는 것-는 누구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을 결혼의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이치입니다. 그것은 어느 한쪽만의 의무가 아니라

쌍방 공동의 의무인 것입니다. 즉 남편과 아내 둘다 서로 존중해야 하며 서로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아내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쿠란 귀절에서 알 수 있으며 복종하지 않은 아내를 혼제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반항할 것이라고 생각 되는 사람(부인)에 대해서는 혼제하고 침실을 따로 쓰며 징벌할지니라, 다음에 그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면 그들에게 거슬리는 태도를 취해서는 아니되느니라 [4 : 34]

여러분은 이 귀절중에서 처음에는 혼제를 하고 마지막 과정에서 벌을 가하는 상당히 점진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특전이 남성들에 의해서 남용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지마는 모든 권력이라는 것도 남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유일한 방지책은 이슬람이 그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고 있는 인간의 정신적 도덕적 품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앞의 귀절에 명시된 점은 가족생활을 보호하며 파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법이 실제로 유용하며 효과적일려면 법을 어기는 사람을 다스릴 힘을 지녀야 합니다. 만약 그런 힘이 없다면 법은 허구에 불과할 뿐이며 효용성을 잃게 됩니다.

결혼이란 궁극적으로 부부의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제도이며 법들의 개입없이 가정에 사랑과 화목함이 가득하며 모든 구성원에게 최대한의 행복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부부가 서로 화목하지 못할 경우에 필연적인 결과는 그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후손에 까지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내가 이런 불화의 요인이라면 누가 그녀를 제도할 것으로 당신은 기대 하시겠습니까? 법정은 단지 개인적인 일에 개입함으로써 부부의 간격을 넓힐 뿐이며 부부간의 의견차는 사소하고 일시

적 일지도 모르는데 법이 개입함으로 하여 사태를 악화 시켜서 다른 미봉책을 쓸 수 없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부생활의 사소한 문제에 법원이 개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후에도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로 법원의 판결을 기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지각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거의 매일 부딪히는 사소한 문제를 모두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을 법정에서 해결하려 한다면 그러한 불평없이 지내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가정이 법정에 서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혼계를 하기위한 작은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남성이 가정의 대표자이며 실질적인 운영자이기 때문 남성에 의해 사용되어 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관입니다. 앞서의 귀절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고 아내를 혼계 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순종 한다면 악덕은 고쳐질 수 있으며 만약 아내가 악덕을 고집한다면 남편은 아내와 잠자리를 달리 해야 합니다. (이것은 처음 방법보다 좀 가혹한 형벌이라고 여겨 집니다)

이것은 또한 아름다움과 매력을 자랑하면서 때때로 경솔할 만큼 애교를 부리는 여성심리에 대한 이슬람의 통찰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잠자리를 따로 한다는 말은 남편이 아내의 아름다움 매력등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여성의 부른 자존심을 위축시켜 이성을 찾게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까지도 아내의 태도를 고쳐지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내의 자세가 아주 심한 징벌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될 수 없을 만큼 진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음의 아내의 행동을 고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정신적 고통이 아닌 육체적인 고통, 즉 때리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런 내용은 이슬람법의 징벌이 부드러우면서 가혹한 일면이 있음을 밝혀 줍니다.

이런거칠은 배우가 아내의 지위를 강등시키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모든 회유적인 방법이 실패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며 조심스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리적인 도착상태인 경우 징벌이 유일한 치유 방법임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회유적인 방법, 즉 혼계하고 잠자리를 달리는 방법이 효과적이지만 아주 심한 메조키즘에 걸린 경우에 이와같은 방법은 효과가 없으며 육체적인 징벌만이 유일한 치유방법임을 심리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심리적인 고통을 받고 있으며 남성은 상대편에게 가혹한 학대를 가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는 새디즘의 증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앞서 말씀드린 메조키즘에 속한다면 단지 육체적인 고통을 줘서 제정신이 들게하는 방법이 그녀의 행동을 고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문 현상이지만 새디즘에 속한 남성과 메조키즘에 속한 여성이 결혼하여 비록 정상적인 바탕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문일이지만 새디즘에 걸린 여성이 메조키즘에 걸린 남성과 결혼하여 하이힐로 자주 때리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매질은 메조키즘에 걸린 남성에게 평정을 회복시켜 주어 부부가 서로 화목하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만약 사태가 법에 의해 허용된 예방적 방법인듯이 매질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나 사소한 일로 아내를 때려서는 안됩니다. 위의 쿠린 귀전에서 되풀이 하여 정점 방법을 기술하고 있듯이 사도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신체적인 징벌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기 아내에게 매질을 하지 말 것이며 저녁에 잠자리를 함께 할지니라” (복하리)

한편 부인은 비록 남편의 거친 행동을 두려워하고 있을지라도 법은 다릅니다.

“비록 아내가 남편의 학대와 버림을 두려워 한다 할지라도 서로

화복하여 진다면 그들의 죄는 용서 받을 수 있느니라. 화복이 제일이니라” [성구란 4 : 128]

이 점에 대해서는 남녀의 완전한 평등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리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며 인간성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내도 남편이 매질을 한다고 해서 자신도 그와같은 행동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여성은 자신이 매릴 수 있고 징벌할 수 있는 남성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런것이 아내가 아직도 남편을 매릴 권리를 갖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런 면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슬람은 아내가 남편의 저친 대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아내는 그런 경우에 별거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의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의무는 임의로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이런 의무는 하나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한 것이다.

(2) 대부분 아내의 의무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지고 있는 의무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몇가지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한 위치를 점유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러한 배려의 바탕은 남녀의 구조상의 차이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것이 여성을 멸시하거나 굴욕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3) 아내에 대해 남편이 우위를 갖는 반면에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학대할 경우 남편을 버릴 수 있는 법적권리를 갖는다.

앞에서 여러번 언급했듯이 여성의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에 관해서는 여성에게는 세가지 보장을 갖게 됩니다.

(a) 여성은 자신의 남편과 이혼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며 이것은 결혼을 함과 동시에 갖게 됩니다. 비록 지금까지 여성이 이 권리를 행사한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이슬람법은 분명히 허용하

고 있습니다.

(b) 부인은 남편이 싫어져서 더 이상 함께 생활 하기 싫을 경우 남편에 대해 이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으며 사도님의 개인적인 예도 있고 이슬람법의 일부가 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 여성의 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단 한가지 조건은 결혼 때의 받았던 지참금을 남편에게 돌려 줘야 합니다. 또한 남편도 아내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포기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돈이 헤어지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손실을 입어야 합니다.

(c) 여성에게 부여된 세번째의 방법은 만약 남편이 자기를 학대하였거나 서로 합의된 생계비를 자기에게 주지 않았다는 증거를 법정에서 제시하여 확인 시킬 수 있다면 생계비도 받고 결혼지참금을 돌려 주지 않고 이혼이 성립될 수 있으며, 법정도 여성이 이혼요구의 합법성을 확인되면 결혼계약을 파기 시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성이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이혼 방법은 남성이 여성에 대해 가지는 권한과 완전히 균형을 이룹니다.

우리는 이혼으로 파생되는 많은 불행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부인과 어린이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리고 이혼으로 연유된 끝없는 가족싸움 때문에 얼마나 법정이 소란한지를 들었습니다. 즐겁게 어린애를 기르면서 행복하고 의무감에 찬 생활을 하던 부인이 남편의 돌연한 변심으로 갑자기 이혼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보다 더욱 아름답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게 되거나 새로운 성적 대상을 갖고 싶은 욕망에 빠지게 되거나 아내가 잠자리를 거절했거나 또는 아내의 무감각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성의 즉흥적이며 두자비한 이혼의 요구는 평화스럽고 인내심 있게 살아가는 여성의 생활을 짓밟고 어리고 천진난만한 어린애들의 앞길에 벽구름을 덮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불행이 이혼에서 연유된다는 주장에 우리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혼을 막을것인가? 우리가 이혼을 선언하는 남성의 권리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혼권 폐지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런 상황-로마 카톨릭국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애정이 없는 결혼생활과 결혼함으로써 영원한 속박을 받으며 자유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결혼이라 부를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상황이 부도덕한 범죄를 일으키지 않을 것인가?

이런 부모 밑에서 어린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 할 여지가 있습니다.

「남성의 이혼권이 제한되어야 한다」 즉 단순한 선언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못하게 하자는 의견이 제안 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기 중재자를 임명한 후에 법정만이 이혼한 권리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은 덧붙여서 중재자는 남편을 설득시켜 그의 뜻을 버리게 하고 부인과의 화목을 되찾게 하는 등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토론을 하고 그래도 실패한 경우에만 법정문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사이에 평화와 화목을 회복시키려는 그와 같은 회유적 방법의 채택이 법적으로 불가능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이슬람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법정에서 까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화목과 평화는 무엇보다도 본인들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중재자를 선정하여 부부사이를 개선하도록 권유한 후에 효과가 없으면 법정이 이혼을 선언하게 하는 문명국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슬람나라에서도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혼율이 무려 40%나 된다고 하며 이통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결점이 부인에게 있다는 것이 법정에서 확인되고 동시에 남편이 그 부인과 산다는 것이 불행한 일이라는 것이 증명되

는 경우에만 이혼이 성립된다는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더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는 집에서 부인을 계속 살게 함으로써 부인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시당하는 무력한 여성에게 허용된 방법이 멸시를 감수하면서 계속살아야 한다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정당치 못한 것입니다.

자식만을 기르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사랑이 없는 집에서 계속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어린이들도 건전하게 자라는데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해만 끼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건전한 사회생활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덕행과 선행을 많이 행해지도록 함과 동시에 오랜 지적인 수련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전제적인 사회교육과 도덕적, 심리적, 정신적인 수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전을 이룩하기에는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사회생활은 모든 사회제도-가정, 학교, 영화, 라디오, 신문, 문학, 종교-이런 목적을 달성하려는 일반대중과의 협동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이슬람법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길은 멀고 험난하나 좋은 결과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은 기본적으로 정의의 실현과 관계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은 부부가 더이상 함께 생활하는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신될 때 이혼을 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부부에게 똑같은 권리를 부여합니다.

위의 이야기와 관련하여 다음 귀절을 살펴 보겠습니다.

“남성에게 허용된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은 이혼을 가장 싫어하신다” [하디스]

일부다처제에 관해서 우리는 그것이 긴급조치법이란 것을 잊어서는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슬람법의 기본원칙을 뜻하는 것

이 아닙니다.

“너희가 필요하다면 들 또는 셋, 또는 네명의 부인을 거느릴 수 있느니라 그러나 그들을 공평히 대할 수 없다고 생각 된다면 단정한 여자와 결혼하여야 하느니라” [성구.란 4 : 3]

이 귀절에서 지적했듯이 일부다처를 원하는 남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공평하게 대하라는 실천 불가능한 것 입니다. 이 요구는 실제적으로 남성은 단지 한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같이 이슬람법은 정상적인 생활에서 일부다처제 보다는 일부일처제를 옹호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일부일처제가 오히려 결단이 많은 제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 있을 경우 이슬람법은 일부다처제의 문호를 개방합니다. 비록 일부다처제가 완전한 정의를 실현하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일부다처제에서 생기는 결점이 일부일처제 보다는 덜 심각할 경우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남녀의 수의 차이가 극심할때 많은 여성들은 생활의 궁핍과 성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여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다처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수한 상황이라고 해서 사회도덕을 생각하지 않고 과부들이 성적욕구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운명을 겪은 프랑스는 사회가 붕괴되는 결과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역사속에서 누렸던 영광의 지위에서 떨어져 내려 앉았던 것입니다. 만약 부인 모두를 공평하게 대우할 수 있는 경우에 한 남성이 한번에 여러명의 부인을 얻을수 있도록 법이 허용했다면 그런 사회적 붕괴현상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때와는 다르더라도 어떠한 사태에서도 일부다처는 필요합니다. 성적욕구가 아주 과다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부인 하나에 만족할 수 없으며 또한 넘쳐 흐르는 욕구를 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법에 의하여 들에 부인을 얻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건전한 사회체제라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여자친구와의 부정한 성관계를

가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부인의 불임증이나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만성병 등 많은 어려운 경우에 일부다처가 단 하나의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번째 경우, 즉 여성이 불임증일 때에 그 때문에 여성을 비난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그녀의 남편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가장 강한 욕정을 평생 억제해야 하겠습니까? 또 다른 여인과의 결혼이 그러한 경우에 유일한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첫번째 부인은 계속하여 그들과 함께 살거나 따로 살 수 있습니다. 만성병에 걸린 부인에 대해서 논해 보겠습니다. 성욕은 천한 본능이며 그러므로 죄가 없는 부인의 행복과 안녕을 희생시켜가면서 까지 성적 만족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성욕이 천한 것인지 아닌지는 문제가 없으며 성욕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기꺼히 포기하고 그의 부인의 즐거움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고상하고 아량있는 행동으로써 높이 평가해야 할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는 누구나 쉽게 질 수 있는 정도 이상의 짐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더우기 현실적인 것을 피하지 않고 맞아 들이는 것은 일부다처가 허용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바와 같이 고상함을 가장하면서 모든 종류의 추행을 행하는 것보다는 더 실제적이고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런점에서 부인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혼할 수도 없는 상황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는 일부다처가 유일한 해결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성문제에 대한 다른 의문점을 풀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슬람에 의하여 당연히 허용되어 있는 대중 속에서 일하고 활동할 여성의 권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여성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밖에서 일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슬람도 여성교육, 간호, 여성의 치료 등과 같은 여성의 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사회기구에 여성이 나가 일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전쟁

동에서 남성이 필요한 것 처럼 이런 목적을 위하여는 여성의 봉사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부인이 생계비를 벌어들일 사람이 없다면 당연히 밖에 나가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정말로 여성이 밖에 나가 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여성을 밖에 나가 일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서구사회나 공산국가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여성이 사회에서의 활동을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이 여성의 가정 밖에서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하는 이유는 여성이 집을 비우면 많은 심리적 사회적 도덕적인 문제들이 발생함으로써 집안에서 여성의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지 때문입니다.

여성은 어머니로서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데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성이 다른 중요치 않는 일에 주의를 들린다면 여성의 이러한 성질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여성은 남성의 손에 있는 노리개가 될 뿐이며 무절제한 사치와 방종에 빠져 남성의 어리석은 요구의 희생물이 될 뿐입니다. 인간이란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변화하지 않는 불변의 실체라는 것을 주장하는 이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을 상실케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여성이 자신이 없을 때라도 어린애를 돌보는 보모들 들으로써 가정에서 엄마노릇을 하면서 밖에서 일할 수 없단 말인가?”라고 반론이 제기될 것입니다. 이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보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능한 신체적, 지적, 심리적인 모든 도움을 어린이에게 줄 수 있을런지는 모르나 단 한가지 엄마 아니면 줄 수 없는 사랑만은 줄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랑이 없다면 인생은 풍요로울 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도덕의 저변도 마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가치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바보같은 공산주의 옹호자들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인간성을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린이는 적어도 첫 2년 동안은 엄마가 돌보아

야 합니다. 어떻게 부모가 이러한 사랑과 주의를 아이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대부분의 경우 10살에서 20살의 아이를 돌봅니다. 어린이들은 그들의 장난감과 그들이 함께 받고 있는 인위적인 엄마의 사랑을 위하여 서로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리하여 싸움은 부모의 애착과 사랑이 없는 어린이의 마음에 짜늘함과 거칠음만을 남겨 주면서 삶의 필수적인 특징인 양 가슴속에 자리잡게 됩니다.

어떤 절실한 필요가 있다면 부모가 어린이들을 돌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실한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어린애를 부모에 맡기는 것은 바보같은 짓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서구사람들은 역사적,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생활조건을 핑계삼아 자신들을 변명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슬람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성들의 노동을 필요로 할만큼 밖에서 일할 남성근로자가 없겠습니까? 또는 무슬림 남성들 즉 아버지, 형제, 남편 또는 친척들이 그들의 딸, 자매, 부인 또는 가난한 친척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들이 밖에 나가 생환비를 번어야 할만큼 방임하겠습니까?

여성이 밖에 나가 일함으로써 경제적 독립성을 획득하여 사회에서 여성의 명예와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슬람이 여성에게 경제적 독립성을 주는 것을 법적으로 부정하였는지는 의문입니다. 사실상 이슬람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제제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때문에 남녀가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모든 국가가 번영하고, 누구도 가난하지 않도록 우리의 물자생활을 점점 높이는 데 있습니다.

부인을 밖에 나가 일하게 함으로써 두 사람이 번기 때문에 가족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할런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경우에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인이 밖에 나가 일한다면 남편과 부인이 오랫동안 따로 있게 되어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을 경우 여성이

밖에 나가 일한 것에 대해 어떠한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인 변명이 통할 수 있겠습니까?

부인에게 전신을 다하여 인류를 돌보는 여성의 본래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이슬람은 사회의 요구와 마찬가지로 인간성의 요구에 주의를 돌립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부인에게 높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부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여 도와주는 의무를 남성에게 부과하였습니다.

“한 남자가 사도님에게 ‘제가 가장 잘 돌보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사도님께서서는 말씀하시길 ‘너의 어머니니라’라고 말씀하셨다. 그 남자는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사도님께서서는 말씀하시길 ‘다음에도 너의 어머니니라’라고 말씀하셨다. 그 남자는 ‘그 다음에는 누구입니까?’라고 물었다. 다시 사도님께서서는 말씀하시길 ‘너의 어머니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남자는 다시 한번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라고 물었다. 사도께서는 ‘다음에는 너의 아버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슬림과 복하리)

그러면 오늘날의 무슬림 여성들의 외침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슬람이 아직도 여성들에게 허용을 하지 않아서 사회의 대표나 투표권을 통하여 획득하여야 하는 권리나 기능이 있는가를 살펴 보겠습니다.

여성은 동등한 인간의 지위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이론적으로나 법적으로 이것을 이미 여성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여성은 경제적인 독립성과 사회생활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합니다. 이슬람은 이것을 여성에게 처음으로 허용한 종교입니다.

여성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요구합니다. 이슬람은 이것을 인정했을뿐 아니라 동시에 여성의 의무로 만들었습니다.

여성은 본인의 동의없이 결혼하지 않을 권리를 바라고, 이슬람은 이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했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배우자를 정할 권리까지 주었습니다.

여성은 자기 집에서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을 것을 요구하며, 그리고 만약 남편이 자기를 공정하고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면 남편과 이혼을 청구할 권리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슬람은 이러한 모든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것을 남성의 의무로 정하였습니다.

여성이 밖에 나가 일할 권리를 원하는 경우 이슬람은 이러한 권리도 인정합니다.

천하고 창피스런 타락에 빠질 자유를 여성이 갖고 있는가? 이슬람은 남성이 그러한 타락에 빠짐으로써 자신들을 실추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과같이 여성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은 의회의 여성 대표자들도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유를 원하는 여성은 사회의 유대와 전통이 무너지고 무질서에 빠질 때까지 인내심있게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 때에는 모든 이러한 방종에 대한 욕구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생활여건과 가치체계가 서양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제로 동양여성의 지위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낮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구 여성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자유도 이미 획득하였는데 왜 동양여성들은 그들을 본받아서 빼앗긴 권리들을 되찾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입니다. 이슬람 국가의 여성은 일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존경과 우아함을 갖지 못합니다. 여성은 수준이 낮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란 단어는 단지 천하고 세속적인 욕망에 대한 대명사입니다. 여성은 행복감보다는 고통과 부자유에 조물리고 있습니다. 여성은 받는 것 보다는 주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감정적 존재 이상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이것은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가? 이슬람과

이슬람의 교리가 그것과 관련이 있는가?

사실 동양여성의 비참한 상태는 오늘날 동양에 팽배해 있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심리적 여건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 우리의 사회생활을 개선하고, 사회악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이런 사항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동양여성의 현재의 비참한 상태의 근저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 수 세기동안 동양이 겪어왔던 참담한 가난이 있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치와 낭비 속에서 살고 반면에 나머지의 다른 사람들은 먹고 입을 것조차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살며 국민을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누어 전자는 모든 특권을 누리면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의무는 지지 않는 반면 후자는 무거운 의무만을 짊어 집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인 불공평입니다. 하늘을 뒤덮은 압제의 검은 구름은 바로 이런 사회적 요인의 결과입니다. 동양에서 현재의 여성에 대한 굴욕과 학대는 실제로 이런 여건때문입니다.

여성은 자신과 자신의 동반자인 남성 사이에 사랑과 존경의 따뜻한 관계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억압과 비참한 가난의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사랑과 존경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역시 비록 여성보다는 비교적 나은 편인 것 같지만 이러한 환경의 희생물인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서 자신이 받는 학대와 기침 대우에 대한 반응으로 여성을 학대하고 거칠게 대우합니다. 남성은 마을의 지도자들, 경찰관들, 공장 주인, 국가의 수반들에게 거친 대우를 받고 모욕을 당하며 자존심을 상합니다. 남성은 사회생활에서 이런 굴욕과 불명예를 받을뿐 아니라 이런 적대세력에 대해 보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아내나 어린이들 그리고 그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게 됩니다.

남성을 극도로 피곤하게 만들며 그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사랑, 동정, 관용을 베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저주받을

가난입니다. 또한 여성들이 남편의 모욕, 잔인, 거친 대우 등에 대해서 인내심 있게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비참한 가난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땅을 벌어서 주는 사람이 없으면 더욱 비참해 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남편이 자기와 이혼할까 두려워 정당한 법적 권리조차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기와 이혼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부모는 너무 가난하여 그녀를 부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여성에게 남편에게로 돌아가서 가능한 한 굴욕과 멸시를 참으라고 권유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동양에서 여성이 멸시당하는 이유입니다.

둘째로, 동양은 서양에 비해 문화가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념과 자아의식이 부족하고 깊은 무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동양은 힘을 존중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간의 더 높은 가치관을 갖고 있지 못하며 동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스스로 경멸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경멸하는 이유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육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경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약한 여성에 대해 그러한 태도를 갖기 위하여는 도덕적인 수양이 필요한데 남성에게는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성이 재산을 소유한다면 존경받을 권지도 모릅니다 재산이란 다른 사람에 대한 권력이며, 힘을 가질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동양과 같은 후진 사회에서 인간은 거의 본능적인 존재의 단계로 내려갑니다.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견해와 태도가 단지 성에 의하여 지배를 받으며 관계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성을 남성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詩 1) 여성은 남성이 돈을 벌고 가정의 대표로서의 우월성때문에 성적 즐거움을 혼자만이 즐긴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심리적으로,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러한 욕구를 즐기

기에는 자신을 너무 비천한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모든 위엄을 잃습니다. 그 결과 남성과 여성의 성적 접촉을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곳에서 행하는 순전히 동물적인 행동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성적 접촉에 있어서 이러한 두가지의 명확한 특징때문에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는 행동의 순간에도 여성은 남성을 의식하게 되며 그 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남성은 여성을 경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진사회는 항상 배고픔과 무지에 시달리기 때문에 비록 도덕의 발전과 수양을 통해서 만이 순전히 동물적인 존재의 단계를 넘어서 보다 높은 인간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러한 도덕의 발전과 수양에 시간과 정력을 소비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도덕과 정신수양의 부재, 또는 부도덕한 것이 인간을 지배함으로써 인간 생활이 필연적으로 경제적인 것으로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힘이 숭상되고 삶은 동물적 차원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는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성에 대한 남성의 견해를 왜곡시키게 됩니다. 어머니는 그의 어린 자식을 작은 독재자로 만듭니다. 어린 아이는 자신의 욕구가 즉각 충족되지 않으면 결코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관대하여서 자식의 부당한 요구를 요령있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아무리 부당하거나 얼토당토않은 요구를 하더라도 그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자식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러한 지나친 관용의 결과로 다른 사람이 이의없이 자기에게 복종할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의 동물적인 열정에만 빠지는 남자로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생활에서 그의 욕망이 거절당하였을 때에는 그의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 남자, 여자, 기타 사람들에게 화를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동양에서 발견되는 혼란과 싸움의 원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이러한 요인만 없다면 동양의 여성들이 그렇게 심한 고통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낮은 지위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 가운데 어떤 사항도 이슬람과는 관계가 없으며 이슬람 정신과도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난? 가난이 이슬람때문일까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선을 받거나 베풀어야 할 만큼의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우마르 빈 알카트' 시대와 같이 사회를 아주 부유하게 만들었던 것은 이슬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은 실제 생활에서 커다란 경제적인 기적을 일으켰던 현실적인 생활체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재건하려 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체제입니다. 현실적인 종교로서의 이슬람은 사회구성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분배합니다. 쿠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부가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순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쿠란 59:7] 이슬람은 가난을 찬양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슬람은 사치와 방종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오늘날 동양여성의 여러 문제점들을 야기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일단 가난이 없어지기만 하면 여성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들로 자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동시에 여성들은 그들의 위치를 회복할 것이며 유산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의 증가된 부의 일부가 여성에게 돌아오기때문에 밖에 나가 일할 필요도 없으며 자신의 안락을 위하여 재산을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부유하게 되면 여성은 확실히 남성의 존경을 받게 될 것이며 가난의 위협이나 공포없이 자신의 권리를 거리낌 없이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쌓았던 자기의 불만을 그의 부인에게 터뜨림으로써 생기는 피로움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이슬람이 그것에 대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슬람은 부정에 대해 복종보다는 반항을 권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책임이 없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슬람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들 아주 평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오마르께서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신자들의 모임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을 어디에서 구해서 입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면 당신의 이야기들 듣지도 않고 당신에게 복종하지도 않을 것입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때 오마르께서는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태도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마침내 그 사람은 일어나서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들을 들을 것이며 또한 복종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어떤 지배자도 국민을 억압할 수 없고 국민은 지배자 앞에서 자기의 마음속에 든 이야기들 숨김없이 털어 놓을 수 있으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는 이들과 어린이들과의 관계는 정의, 박애, 사랑, 우애를 바탕으로 맺어져 있는 그러한 형태의 정부입니다.

인간이 보다 높은 가치관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슬람이 거기에 대해 책임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슬람은 이러한 도덕적 가치관의 퇴보현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슬람은 사람들에게 숭고한 가치관을 가르쳐 줌으로써 인간을 개화시키려고 합니다. 이슬람은 인간에게 가장 부유한 사람이거나 가장 커다란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도 “하느님의 입장에서 보면 행동을 잘 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보다 높은 가치관이 사회에 굳게 뿌리를 내릴 때 여성이 연약하다고 해서 더 이상 경멸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인간에 대한 평가척도는 사도님께서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자기의 부인에게 가장 잘 하는 사람이며 나는 나의 부인에게 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리라.”라고 말씀하신 바와같이 자기의 부인에 대한 정당한 태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님의 이 말씀과같이 인간의 심리에 대해 깊은 통찰을 해보면 심리적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거나 인간에 대한 진실한 가치척도를 갖지 못한 사람이 아니면 자기의 아내를 학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순전히 동물적인 본능만을 추구하는 단계로 퇴보하는 데에 대한 책임이 이슬람에 있을까요? 분명히 아닙니다. 이슬람은 인간이 동물적인 본능에 빠지는 것을 인정할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퇴보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슬람은 인간이 더 이상 본능에 사로잡히지 않고, 인생관이 단지 이런 동물적인 본능에 의하여 형성되지 않으며 보다 높은 경지로 인간을 승화시키려고 합니다. 남녀간의 욕구는 이슬람의 입장에서 보면 순전히 동물적인 관제만은 아닙니다. 욕구를 방치해 두면 예배, 학문, 예술과 같은 창조적인 활동의 추구를 방해하며, 합법적인 배출구가 없으면 부정적인 방법으로 충족시키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적 과잉상태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인정하고 있는 육체적 욕구를 의미합니다. 이와같이 이슬람은 남녀간의 행위를 비난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거기에 몰두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슬람은 더 높고 고상한 목적을 위하여 정력을 소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에 충실하며 부인은 어린애들을 교육시키고 가사를 잘 보살필 것을 권유합니다. 이렇게 이슬람은 순전히 동물적인 욕구와 열정의 유혹에서 벗어나 더 승고한 것을 추구하게 하는 이상을 인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덕성이 결여된 플행이 이슬람의 충동때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쿠란과 사도님의 말씀은 인간의 정신을 승화시켜 자제를 하고 정의의 원칙을 준수하며, 다른 사람에게서 존경받기를 바라는 바와같이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기 위해 도덕적인 격언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회생활의 전통이 동양여성의 후진성에 정말로 책임이 있을까요? 몇몇 작가들이 저술한 바와같이 우리의 전통 때문에 동양여성이 동물과같이 생활하고 생기가 없고 마음이 좁으며 무식할까요? 우리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전통은 우리들이 지식을 얻고 일하며, 사회의 복지를 위한 것이며 사회에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협조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통(註1)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고속도로나 거리에서 꼭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확보하는 것과같이 바보스럽고 불건전한 것입니다.

「註1 “전통”이란 단어는 우리의 순수한 이슬람의 전통을 의미하는 것이지 외국에서 전입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통을 공격하는 작가들은 이 두가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사회적인 활동을 통하여서만이 존경을 얻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는 개화되고 문명적인 서구사회의 여성에게서 유추할 수 있는 바와같이 여성은 사치하고 방탕한 남성의 제물이 되기 쉽습니다. 이와같이 전통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전통이 그들이 진지하게 추구하는 방종, 방탕, 사치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에집트의 한 주간지에서 공공연하게 또는 은밀히 항상 이슬람을 비방하는 비무슬림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부인들에게 낯아빠진 전통을 버리고 집에서 뛰쳐나와 어떤 절실한 필요때문이 아니라 단지 어머니가 오직 보모로서만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하여 공장이나 상점에서 용감하게 남성과 함께 일하십시오.”라고 되풀이 했습니다. 그는 또한 “여성은 용기와 자신이 없고 남성에 대한 공포에 압도되어 거리에서 눈을 내리깔고 걷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경험을 통하여 개명되었을 때에는 용감하게 남성과 맞설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註2). 그는 베일 뒤에서 남성에게 말하곤 하였던 아이샤가 그 당시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으며 군대를 전쟁터로 안내하였다는 역사의 기록을 간과하였던 것입니다. 더우기 그는 사도 무함말, (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소서)께서도 처녀보다 더 겸손하셨다는 역사의 기록을 소홀히 다루었습니다. 눈을 아래로 뜬다는 것은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사도님께서 어찌 자신이 없었겠습니까? 사도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잊으셨겠습니까? 이러한 작가들이

이와같이 바보스런 짓을 얼마나 더 계속할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註2 위에서 언급한 작가는 살라마 무사입니다. 그가 쓴 것은 모두 이슬람의 비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에 동조하여 같이 활동하는 작가로서는 주르지 자이단이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의 적대자로서 선봉에 서서 이슬람의 비방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대단히 낮은 지위에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서구의여성들이 채택했던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적인 여건과 역사가 서로 다르기때문입니다.

이슬람만이 남성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우리 모두 여성이거나 남성이거나, 노인이거나 젊은이거나, 이슬람에 돌아와 이슬람국가를 재건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합시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이슬람법을 시행합시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믿음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길만을 통해서만우리는이 부정과 독재가 존재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이룬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이슬람과 사상적자유

어느 토론회 석상에서 나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어째서요?”라고 묻자, 그는 나에게 “당신은 신의 존재를 믿습니까?”하고 되물었습니다.

“네, 믿읍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제가 자유사상가가 아니라고 말 할 수 있지요?”

“당신은 결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어리석은 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은 무엇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연입니다.”

“그렇지만 자연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끝이 없는 비밀스러운 힘이지만 감각기관에 의해서 인지할 수 있는 표적을 갖습니다.”

이 말에 대해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이 말로 나는 당신이 내가 또 다른 미지의 힘을 믿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미지의 힘을 믿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의문점은 왜 자연이라는 허위의 신은 나의 부름에 대답하지도 않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지도 않는 데 비해, 특히 내가 평화와 평정, 그리고 안락함을 찾은 나의 신을 또다른 미지의 허위의 신을 위해 버려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것은 사고의 자유에 대해 말하는 진보주의자들의 실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고의 자유는 신을 버리는 자유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고의 자유가 아니라 무신앙의 자유입니다. 이러한 전제로 시작해서 그들은 이슬람이 단지 무신앙을 금한다는 이유때문에 이슬람이 사고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비난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고의 자유와 무신앙의 자유는 같은 개념인가? 무신앙이 정말 사고의 자유에 필요한 필수조건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럽 자유주의 역사의 그릇된 인도로, 그들은 유럽의 어떤 부분적인 환경에서만 무신론의 유포가 필요한 것일 뿐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그렇지 않는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로 대표되는 기독교가 과학을 억압하고 과학자를 괴롭히며, 또 짜맞추어 놓은 거짓을 그냥 지나치며, 신의 말이라는 이름아래 미신이 유럽의 자유사상가들을 무신론으로 몰고 갔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유럽의 지식인들은, 신에 대한 천성적인 믿음이나, 이론적이고

도 실제적인 과학적 사실에 대한 믿음의 두 가지 대립된 태도중 하나를 택해야만 합니다.

유럽의 지식인들은 본능적으로 이 궁지로부터 부분적인 도피처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그의 이름을 빌어 우리를 노예화 하고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고 묵제와 미신에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당신들의 신을 도로 가져가시오. 당신들의 신에 대한 믿음은, 우리들 수도자와 온론자들의 금욕적인 생활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노예화하는 교회도 갖지 않으며 당신들의 신이 한 것같은 어떠한 도덕적, 지적, 그리고 유물론적인 강요도 하지 않는 새로운 신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인간을 무신론으로 이끄는 따위의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을 당황하게하거나 궁지에 몰아넣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신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창조했고, 모든 것은 그에게 귀의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주의자나 무신론자까지도 반박하거나,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백하고 분명한 개념인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유럽인들의 교회가 가졌던 것같은 그런 성직자는 없습니다. 종교는 모두의 공동 재산이며 모든 무슬림은 그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지적인 여건이 허락하는 만큼 종교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그들이 생활에서 행하고 있는 행동의 댓가를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은, 그들이 엔지니어이건, 선생이건, 노동자 혹은 수공업자이건 간에 신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이렇게 많은 직업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이슬람에는 직업적인 성직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예배는 성직자의 중재가 없이 행해집니다. 그러나 법률학과 공공질서가 필요로 하는 법을 전공하는 사람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슬람의 법률과 헌법을 연구하는 전문가의 지위는

다른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어떤 권위나 명성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만 법률학자이며 국가의 조언자일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알아즈하르」가 종교적인 집회이긴 하지만 성직자들이 가졌던, 사람들을 괴롭히는 권력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알아즈하르가 할 수 있는 것은 개개인의 종교에 대한 이해에 도전하고 비판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한편 외부로부터 온 사람은 누구든지 알아즈하르의 종교에 대한 이해에 도전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독점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은 그들 직업에 관계없이 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실제 생활에 적용시키는, 종교 문제에 있어서의 권위자로 여겨질 뿐입니다.

이슬람의 계율이 세워졌을 때 이슬람 학자들은 자동적으로 정치가나, 성직자, 사무국장 등이 되지는 않았습니니다. 변화한 것은 다만 규율의 근거를 이슬람 법에 의한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엔지니어는 여전히 그가 하던 일을 했고, 의사 역시 의학적인 일을 맡아 했으며, 경제학자들은 이슬람의 경제가 나타내는 상황의 변화만으로도 그 사회의 경제적인 생활의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역사에는 이슬람의 신앙심과 그 규율 체계가 과학이나 과학의 적용과 충돌을 한 적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어떤 과학자도, 과학적인 사실을 발견했거나 발표했다고 해서 화형에 처해진다거나 고문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과학은 이슬람의 신앙심과 충돌하지 않았으며, 신에 대한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슬람은 사람들에게 우주와 지구에 대해 연구할 것과 신의 존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창조력을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신을 믿지 않는 많은 서양의 과학자들이 적절한 과학적 연구들 통해 신의 존재를 발견하려 노력해 온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슬람에는 인간을 무신론으로 유도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동양의 무신론주의자들은 이전에 그들의 식민지 주인이었던 사람

들에 대한 명목적인 추종자들입니다. 그들은 믿음과 모든 종류의 예배를 공격하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종교를 버리라고 재촉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왜 그들은 그러한 자유를 원하는지요? 유럽에서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미신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이 압제와 폭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종교를 공격할 구실을 찾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슬람적인 믿음이 그들이 필요로 하거나 극성스럽게 요구하는 모든 자유들 이미 허용했다면, 그들은 그것에 왜 공격해야만 합니까? 이러한 소위 사유사상가들은 사상의 자유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오히려 도덕적 타락과 억제되지 않은 성적 무질서에 더 큰 관심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사고의 자유를 그들의 기본적 동기들을 은폐하는 가면으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단지 종교와 도덕에 대한 그들의 무서운 싸움에 대한 위장수단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슬람이 사고의 자유를 제한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그의 기본적인 열정의 지배에서 해방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유스러운 사고의 옹호자들은, 국가가 거대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이슬람의 규율 체제가 독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것 중 최악의 것은 사람들을 때리고 있는 신앙이라는 이름을 빌어 국가가 막대한 힘과 권력을 만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을 무모하게 그 포악한 규율에 복종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거대한 힘은 독재물 가져오고 평민들은 스스로 생각할 권리도 없이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사고의 자유는 영원히 소멸되어 버린다고 주장합니다. 감히 지배자에게 도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종교와 신에 대한 반역이라고 비난받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비난은 성 쿠란의 다음과 같은 귀결들로 단호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1. 인민의 정부는 상담역으로서 인민들 가운데 있느니라
2. 너희가 사람들 사이에서 판단을 내릴 때,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느니라 (4 : 58)

초대 칼리프인「아부 바칼」은“내가 신과 그의 예언자에게 복종하는 한 나에게 복종하라. 그러나 만약 내가 신이나 예언자에게 불복종하는 한 나는 너희의 복종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슬림에게 선교사「우마르」는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에게서 어떤 부정이라도 발견되면 나를 옮겨 이끌어 주시오.”한 청중이 말했습니다. “신의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가 당신에게서 어떤 부정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칼로 옮겨 만들것소”

억압과 폭정이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억압이 몇몇 나라에서, 아직도 종교의 이름을 빌어 행해지고 있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교가 독재자가 쓰는 가면에 불과할 뿐입니까? 허물러는 종교의 이름을 빌어 지배 했습니까? 지금 심지어 러시아에서까지, 스탈린이 경찰국가들 다스린 폭군이며 독재자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스탈린이 종교의 이름으로 통치했습니까? 모택동, 프랑코, 남아프리카의 말론, 중국의 장개석을 포함한 모든 폭군과 독재자가 종교를 대신해서 지배했습니까? 종교의 지배를 제거하려는 20세기에는, 종교라는 가장 신성한 이름으로 인류를 사로잡아 기만하는 가장 무서운 독재들 목격했음이 분명합니다.

독재를 방어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유로운 지성과 양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야망을 감추기 위한 가면으로서, 어떤 고상한 원칙도 이용하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자유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가장 무서운 범죄들 여러분은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에 대해 싸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됩니다. 수 백만의 죄 없는 사람들이 법률이라는 이름 아래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살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법률을 무효화 해야만 합니까? 억압과 폭정이 종교의 이름으로 몇몇 나라를 지배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종교를 버려야 합니까? 만약 종교가 억압

과 부정을 옹호하려 했다면 종교를 버려야 옳습니까? 이것은, 무슬림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무슬림과 그들 적과의 사이에서도, 순수한 정의와 공평을 이룩한 이슬람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신을 믿고 종교에 의해 방어될 수 있고, 안전하게 인도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하라고 가르침으로써 폭정과 대항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지배자가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허락지 않고, 그의 법적인 힘의 한계 속에 묶어 둘 것입니다. 나는 이슬람 만큼 정의를 세우고 폭정에 반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 종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은 사람들에게 만약 통치자가 부당할 때는 바로 잡을 것을 정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말하기를, "어떤 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것에 도전해야 하느니라. 부정한 통치자 앞에서 정의의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성스러운 싸움이니라."라고 했습니다.

3대 칼리프인「오스만」이 정통의 길에서 벗어나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은 이러한 원칙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비록 그 반란 자체가 더 큰 탈선을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러한 진보주의적 자유사상가들에게 한 마디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자유에의 길은, 종교의 포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부정을 혐오하고 그릇된 것을 교정하는 혁명적인 사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바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제6장 이슬람과 처벌의 개념

어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전에 사막에서 적용했던 것과 같은 원시적인 처벌의 방법을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단돈 몇 푼 때문에 도둑의 손을 자르거나 할 수 있을까? 죄인을 사회의 희생물처럼 취급하며 죄인에게 처벌보다는 위로적 보살핌을 주려하는 20세기의 국가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찌서 북아프리카에서는 20세기의 국가가 단 한 사람의 죄인의 정당한 처벌은 막으면서 4만의 죄없는 사람들이 살인을 범하게 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죄인에게 투석사형을 가할 경우) 진실을 숨기려는 현혹된 말로부터 인간들을 구할진저!!

20세기의 문명과 더불어 그 범죄도 다양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슬람에 있어서의 범죄와 처벌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 해봅시다.

범죄란 사회에 대한 개인의 침해라 간주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죄와 벌의 개념이 개인과 사회의 관계라는 국가의 개념과 가까이 이어지게 됩니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 같은 개인주의 국가는 개인을 매우 신성시 하여 모든 사회생활의 중심으로 간주합니다. 그러한 나라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의 권리를 억제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그들의 죄와 벌에 대한 개념을 반영합니다. 그들 나라는 죄인들이 부패한 주위환경과 극복할 수 없었던 정신착란 및 신경질환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급적 친절히 다루며 동정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 나라는 형벌-특히 도덕적 범법자에 있어서의-을 처벌이라 생각하지 않을 정도까지 약화시키려 합니다.

여기서 범죄를 정당화하고 설명하기 위해 정신분석학이 도입되었습니다. 범죄를 사회, 종교, 도덕 그리고 전통 때문에 억눌려 있던 성적본능의 결과로 인한 성적 컴플렉스로 간주한 역사적인 선구자는 프로이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후 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의 연구가 프로이드의 예를 따랐지만, 성적 에너지를 생활의 중심으로 본다는 점에 있어서 그와 의견을 달리하였습니다. 모든 그와같은 연구들은 범죄자를 그가 자라난 일반적이고 개인적인 환경의 희생물인 수동적 피조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정신적 결정론”이라고 불리는, 즉 이미 정해진 태도에 따라 행동하는 정신적 에너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지나 행동의 자유가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사회란 개인이 거역할 수 없는 신성한 본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국가에서는 반

사회적 행위를 한 개인에게 사형 또는 고문 등 심한 형벌을 가합니다. 공산주의는 범죄자에 대해 프로이트나 그밖의 심리학자들이 도입했던 정신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을 더 중요시 합니다. 공산주의는 경제적 무질서로 곤란을 받는 사회에서는 머덕이 생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범죄자는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내세웁니다. 그러나 경제가 절대적 평등에 의해 조정되는 '소련'에서 어찌서 죄는 저질러지며 감옥과 재판소가 필요한가물 공산주의자들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개인주의나 공산주의나 양측이 어느 정도는 옳다는 것에 의심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위 환경이 개인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며, 잠재의식의 콤플렉스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떤 환경에 마주쳐서 완전히 수동적 존재인 것만은 아닙니다. 정신 분석학자들은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즉 그들은 사람에게 있어서 에너지에다 온 연구를 집중했을 뿐, 인간조직에 있어 선천적인 자제력을 무시했습니다. 어린이가 자기의 분비샘을 조정해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오줌을 싸지 않게해주는 에너지,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나 갑작스런 번덕에 자신이 제속 매이지 않기 위해 그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조건이 개인의 감정과 행동에 얼마간의 영향을 끼칩니다. 배고픔이 정신적 붕괴와 악한 마음을 일으켜서 죄나 도덕적 타락을 낳게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요인만이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아의 가난을 몰아냈다고 주장하는 소련의 실생활에서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즉 어떤 범죄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 안 받아야 하느냐를 따지기에 앞서, 그가 범한 죄에 대해 그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이슬람이 죄와 벌에 관한 문제를 생각할 때 이를 고려했음

을 알아야 합니다.

이슬람은 막연하게 형벌을 금지하거나 적당한 고려도 없이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슬람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양 진영의 가장 우수한 이론을 조화시킨 유일한 이론입니다. 이슬람은 정당한 방법으로 정의의 균형을 유지하며, 범죄자와 관련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도록 주장합니다. 범죄를 연구함에 있어서 이슬람은 동시에 두가지 고려를 합니다. 즉, 범죄자의 견해와, 그가 범행한 사회의 견해를 다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려 하에서, 이슬람은 때만한 이론이나, 국가나 개인의 번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건전한 이성과 현명한 사고에 의한 공정한 처벌을 명하게 됩니다. 피상적으로 판단한다거나 또는 적절한 고려를 하지 않음으로써 잔인하거나 그릇된 처벌을 이슬람은 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슬람은 범죄가 옳지 못하거나 그 범죄자가 어떤 강제에 의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한 그러한 처벌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도둑의 손을 자르도록 명하지는, 그 범죄자가 배고파서 범행을 했다는 조그마한 의심이라도 있으면, 결코 그런 처벌을 가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간봉을 한 남녀에게 돌을 던지라고 명하지만은 그들이 기혼자들이 아닐 경우, 혹은 그러한 가증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목격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없을 경우, 그러한 처벌은 가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모든 처벌에 대해 이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슬람의 가장 뛰어난 입법자였던 「우마르 이븐 알카탐」 제 3대 칼리프에 의해 제정된 법률에서 이것을 명백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마르」는 샤리아(이슬람 법)을 정직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법 해석에 있어서 관대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마르도 기근으로 도둑질이 만연할 듯한 시기에는 도둑의 손을 자르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위의 그러한 법 적용은 다음의 일화로 잘 설명이

됩니다.

「하티브 이븐 아비 발타」외하인들인 몇몇 소년들이「무즈나」족인 어떤 사람의 암낙타를 훔쳤다는 보고가 우마르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우마르가 그 소년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은 절도죄를 시인하였고 그리하여, 그는 소년들의 손을 자르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한 후에 그는「하티브」에게 말했습니다.“네가 그 소년들을 고용했고, 또 먹을 수 없는 정도의 것까지도 먹을 정도로 굶주렸다는 사실을 만일 내가 물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들의 손을 잘랐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용주에게 설교하기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는 그들의 손을 자르지 않았기에 나는 너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 그는 그 고용주에게서 암낙타 값의 두 배를 물게 했습니다.

이 일화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매우 명백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주위 환경이 죄를 짓게끔 만들었던 상황에 있어서는 형벌이 행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칙은 성 예언자(그 분께 평화가 깃드소서)의 말씀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막연한 의심에 의해 처벌하지 않도록 해야 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처벌을 명함에 있어 이슬람이 채택한 정책을 연구해 본다면, 이슬람은 우선적으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정화하는 데 주력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전 주의를 한 후에야 자기의 죄에 대해 아무런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자에게 처벌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없앨 수 없거나 또는 범죄에 대해 어떤 확신을 할 수 없는 사회에서는 처벌은 가해지지 않고, 통치자는 죄인을 방면하거나, 가벼운 형벌(태형이나 징역)로써 벌하게 됩니다.

이슬람은 갖가지 방법으로 범죄를 일으키는 환경을 제거하려 노력합니다. 또한 부의 공정한 재분배를 보장하려 합니다.「우마르 빈 압둘 아지즈 정부」때엔 거의 빈곤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슬람 국가는 모든 국민을 종교, 인종, 언어, 외부색 또는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풀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

에게 어엿한 직업을 마련해 줄 책임도 있습니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거나, 그의 능력이 부족하면 국고에서 그 사람을 돌봐줘야 합니다. 이슬람은 모든 가능할 수 있는 범죄 동기를 없애려 하고, 처벌을 가하기 전에 그에게 범죄를 강요할만한 환경이었는지를 확인 합니다.

이슬람은 성욕을 인정하지만, 그 성적 본능을 합법적인 방법- 즉, 결혼-을 통해 만족시키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은 조혼을 권장하며, 비용이 없어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을 국고로 보조합니다. 한편으로 이슬람은 흥분을 유발하는 충동들로부터 사회를 정화하려 노력합니다. 또한 과잉 정력을 고상하며 우아한 이상을 함하게 함으로써 소모시켜,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이슬람은 여가를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에서 보낼 것을 권합니다. 이슬람은 이런 방법으로 범죄를 일으키는 모든 동기를 제거하려 합니다. 더구나 이슬람은 범죄인이 2인 이상의 증인이 될 정도로 공공연한 간통으로, 전종을 무시하거나, 동물적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처벌을 하는데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현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 사상은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성범죄를 유발할 정도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말은 어느 정도 사실로써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슬람이 진정 바르게 적용되는 사회에는 젊은이를 타락하게 하는 미친듯한 유희, 포르노, 외설적 영화, 잡지, 신문 또는 음악등은 없습니다. 거리에는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순결한 결혼을 막는 빈곤도 없습니다. 그와같은 경우에만 사람은 덕에 살며 덕을 쌓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범죄자에게 어떤 변명- 즉, 환경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등-이 있을 수 없게 되므로, 그들 가차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처벌을 하기 전에 이슬람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일소하려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가 발생한 후에도, 형

외에 조금이라도 의심가는 사항이 있을 경우엔 처벌을 보류합니다. 그 어느 체제가 이슬람의 정의와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이슬람이 채택한 처벌이 원시적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와 처벌에 대한 이슬람적 개념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슬람의 처벌이 마치 자신들의 법률이 행해지듯 매일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슬람 사회가 매일 태형, 손 절단, 돌에 의한 처형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시행하기 꺼리는 처벌은 매우 희귀하게 행해집니다. 도둑에게 가하는 처벌이 400년이란 기간 동안에 6번 행해졌다는 사실은 그러한 처벌은 될 수 있는대로 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명백히 밝혀 줍니다.

이슬람은 처벌을 명하기 전에 범죄를 방지하는데 주력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처벌이 가해 질 경우에는, 매우 정당하게 시행됨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슬람 법의 적용을 두려워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그들이 죄인이고 범죄 행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처벌이 실제로 중요함을 가질 수 없다고들 합니다. 이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런 처벌은 아무런 합당한 범죄 동기가 없으면서 범행을 강한 욕망에 의해 저지르는 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채택된 것입니다. 그네들의 욕망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범행하기 전에 이 처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성욕억제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공공 복리를 위해 일하고, 사회 구성원들을 돌보아야 하는 한 인명과 재산에 대해 완전한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무 합당한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들을 그들 멋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슬람은 무슨 수로든지 이들을 정상인으로 환원시키고 보살핍니다.

어느 교양있는 젊은이나 현대의 법률학자가 서구인들로부터 원

시적이라고 불리는게 두려워서 이슬람이 정한 처벌을 어기려 한다면, 참으로 후회할만한 어리석은 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정한 이슬람 법의 지혜를 배움으로써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제7장 이슬람과 성적 억제

서양의 심리학자들이 종교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들은, 종교가 인간 본연의 활동성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죄의식으로 인한 우울 속에 빠뜨리곤 한다고 말합니다. 종교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러한 감정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죄악이며 따라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모든 즐거움을 잃어지 않고는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유럽에 한때 암흑기가 닥쳤을 때, 그들은 종교를 신속히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가 요구하는 하찮은 금기들을 거절했을 때, 유럽 내부의 감정은 해방되었고 활동과 생산의 장으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종교로 귀의하기를 바랍니다까? 해방된 감정을 또 다시 구속하기를 원합니까? 진취적인 엘리트인 우리들이 젊은이들에게, 이것은 해도 좋다 저것은 하지마라 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침해해야겠습니까?

유럽이 그들의 종교에서 무엇을 바라는가 하는 문제를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보류하기로 합니다. 그것을 믿고 안믿고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인 종교를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슬람에 대해 논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이 생동력을 억제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억제의 정의부터 내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끔 엘리트나, 모방을 잘하는 범인들에 의해 잘못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억제란,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이 본능적인 것을 행하는 것을 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제는, 본능적인 감정 자체를 불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을 거부하는 데서 나올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억제는, 본능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닌 무관심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불결한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가 하루에 20번이나 이런 짓을 한다 해도 그가 억제의 감정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번 그가 하는 일과 해야만 하는 일 사이의 마음의 투쟁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잠재적으로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은 강박관념이나 정신착란의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억제에 대해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생이 연구에 바치고, 종교가 인간의 행동성을 억제한다고 혹명한 프로이드의 해석입니다.

그의 저서 <성에 관한 확설에 대한 세가지 공헌>의 82페이지에 의하면 “잠재적인 억제와 본능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과는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 잠재적인 억제는 단지 행동의 중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억제가, 본능적인 감정을 불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 행동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슬람에서의 억제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합시다.

원초적인 행동의 동기를 받아들이고 마음이나 감정속에서 그것의 위치를 정당화하는데 있어서 이슬람만큼 솔직한 종교는 없습니다. 쿠란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여자나 자손, 금은 보화, 값비싼 말들, 재물과 경작지에 대한 욕망을 가진다.” 이 구절에서 보듯이, 쿠란은 모든 세속적인 욕구물 인정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중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슬람은, 인간이 이러한 욕망에 의해 움직이고 결국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인생이 이런 것들에

의해 이끌려서는 안됩니다. 만약 인간이 그의 모든 정력을 소모해가면서 색욕만을 탐닉하고 퇴폐와 수성에만 익숙해진다면, 인간이 항상 좀 더 나아지려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슬람은 인간이 짐승의 수준으로 타락하는 것을 허용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잠재적인 억제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데 있어서 이슬람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칙적인 동기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잠재적으로 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즐기는 정도로 이 본능적인 것을 실행하는 것을 허가해 주며, 개인이나 사회에 해를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즐기도록 합니다.

퇴폐적인 향락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의 생동력을 생활에 쓰기 전에 이미 다 소모해 버리고, 후에 들이킬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줄 욕망의 노예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오직 향락에만 빠진 사람들은 사회에도 해를 끼치게 됩니다. 즉, 좀 더 가치있는 일을 성취하는 데는 소홀하게 되며 게다가 가족 관계마저 해체되고 사회의 낙오자가 됩니다.

이와같이 이슬람에서는 해로운 점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생의 쾌락을 즐기도록 허락합니다. 그것은 쿠란에 명시된 바와같이 꼭 그렇게 행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의 즐거움을 주신 신을 숭배하지 않겠는가.” “너의 본분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네게 부여한 생을 즐기도록 하라.” “그리고 먹고 마시되 지나침이 없도록 하라.”

또한 쿠란은 특별히 성적인 흥동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교적인 억제에 관한 토론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언자(그분에게 평화와 기드소세)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너희가 사는 세상에 본질적인 사랑과 이성에 대한 사랑을 부여했고 신께 기도하는 자는 나의 은총을 받을지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충동을 본질적인, 이 세상의 향기로운 향기라는 고귀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그것을 인간과 그의 창조주 알라를 가장 가깝게 하는 매개체인 기도와 관련짓고 있습니다. 그는 좀 더 쉽게 말하기를, “인간들이 그의 아내와의 사이에 갖는 성행위는 무방하다.” 그때 무슬림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사도님! 그러면 우리가 아내와 성행위를 하는 것은 신께서 용서해주는 것입니까?” 사도(그에게 평화가 깃드소서)께서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러한 행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정당한 방법으로만 행한다면 무방하다.”

이렇게 볼 때, 이슬람교에서는 어떤 억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 젊은이가 성적인 충동을 느꼈을 때, 거기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며 따라서 그것을 불결한 것으로 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다만 그러한 충동을 억제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무의식이 아닌 의식으로 조절하기를 요구할 뿐입니다. 즉 적절한 시기를 위해 그것은 실행하는 것을 연기하는 것이며 프로이드에 의하면 적절한 연기는 억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억제 처럼 강박 관념이나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신경 장애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슬람이 이렇게 욕구를 조절하여 제어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즐거움을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이슬람 역사상에 보면 이슬람 이외의 어떤 교리나 법률로도 인간의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국민들이 그들의 함락술, 필요하다면 몇 날이고 몇 년이고 연기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역경을 견뎌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는 국제적인 투쟁 속에서 그 어느 나라의 국민도 시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와같이 인간이 지켜야 할 근본 자세를 주입시키는데 이슬람의 단식은 현명한 교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정보주의를 내세우는 해이한 사람들은 “무엇한 목적이

나 이유 없이, 멋대로 정한 명령에 복종 시켜, 사람이 먹고 마시는 기쁨을 박탈하여 굶주림과 갈증의 고통을 주는 것은 년센스가 아닌가?"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 제재가 없는 인간이, 그의 생활을 옳게 꾸려 가겠습니까? 사람이 단 몇 시간도 억제할 수 없다면 어떻게 참다운 인간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할 전쟁이 발생했다면 전쟁터에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참고 견디면서 싸우겠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이슬람교 국가들의 단식이나 다른 금기를 비롯하지마는, 그들이 심신에 고통을 주는 고된 훈련을 견뎌내는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스탈린그라드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공격을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단식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신의 계시이며, 신이 명령을 내릴 때면 국가는 이를 법으로 정하여 모든 국민이 따르도록 합니다. 이슬람에는 단식과 기도의에 신을 숭배하는 것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서 진실로 믿고 느낄 수 있는 진실한 무슬림이 되자면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영화관에서 영화 구경 한번하고 그 내용을 느끼는데 일주일이나 걸립니까? 이치는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속죄하여 하나님에게로 가는 절호의 기회를 얻어 그의 세계에서 즐거운 생활을 가짐으로써 마음의 걱정과 병이 없고 자포자기하지 않는 인생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듯이 종교가 그 추종자들의 삶을 침해하고 죄의 그늘 속에 몰아 넣는다면, 벌을 내리기 전에 용서를 하는 이슬람은 그들의 주장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습니까?

이슬람에서 죄는 인간을 항상 괴롭히는 요괴도 아니고 인간의 생활을 압담하게 하는 끝없는 어둠도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한 큰 죄는 인류 전체에 지워진 짐이 아니고 구원이나 정화를 필요치 않습니다. 알라는 쿠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신의 계시를 어겼지만 그는 용서받았다."

아담의 자손들은 아담과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알라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은 인간의 본성을 알고, 그들이 견딜 수 있는 만큼의 고통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신은 인간의 능력 이상의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신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만큼의 고통만 지우십니다” (쿠란). 예언자 (그에게 평화가 깃드소서)가 말하였습니다. “모든 아담의 자손은 죄인이지만 속죄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쿠란에는 자비와 용서와 회개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따라야 합니다. 쿠란에 의하면, “너희 창조주에게 용서 받기를 서둘러라.” 역경을 이겨 나가고, 노하지 않고, 관대하며 하나님이 내린 은총을 받아들이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에게 하늘과 땅 만큼 넓은 낙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범했거나 부정한 짓을 했을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용서를 빌고 그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같은 진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게 잘못을 범할 수도, 주장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정말 당신의 종들에게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특히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더욱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알고 나면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신은 인간들의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자애롭고 친절하신 은총으로 그들을 진실한 신앙을 가진 종교인이 되도록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나 은총에 어떤 의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는 누구나 동정하시어 기꺼이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 고통으로 시달리는 무리가 있겠습니까?

알려 언급한 사실들을 더 이상 증명해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예언자의 말씀은 독특한 증언이므로 인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영혼이 주의 손 안에 있는 자들아!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면 어찌 주께서 추방할 수 있겠느냐? 알라께서는 죄를 지으나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사함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International Islamic Federation
of Student Organizations**

P. O. BOX 8631

SALIMIAH - KUWAIT 22057

